

# 교과서연구

제 58호

2009. 12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이화성,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편집협력위원(사·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희(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번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 홈페이지: [www.ktrf.re.kr](http://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mailto:editor@ktrf.re.kr)

\* 표지 글씨: 신두영

\* 편집 디자인: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 ● 권 두 언

2 \_\_\_\_\_ 기초나 창의성이나 / 권재술

## ● 특별 기획: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

- 6 \_\_\_\_\_ 미래형(2009) 교육과정의 철학과 기본 방향 / 허 숙  
10 \_\_\_\_\_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조와 내용 / 홍후조  
16 \_\_\_\_\_ 외국의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수 제시 방식 / 박순경  
24 \_\_\_\_\_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 / 백경선  
29 \_\_\_\_\_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교과서의 모습 전망 / 김태훈  
34 \_\_\_\_\_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 쟁점과 발전 방안 / 류청산

## ● 현장 교육

42 \_\_\_\_\_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실제 운영 사례 / 서현상

## ● 논 단

- 48 \_\_\_\_\_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중일의 노력 / 구난희  
55 \_\_\_\_\_ 교육 내용,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향상 / 김대석

## ● 연 재

58 \_\_\_\_\_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대하여 / 김 흠

##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63 \_\_\_\_\_ 음악 교과서의 역할 / 기선민  
65 \_\_\_\_\_ 교과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 최진선

## ● 단 상

- 69 \_\_\_\_\_ 교과서에 얹힌 추억들 / 조원표  
71 \_\_\_\_\_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 김정일

## ● 탐 방

75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9) - 최광언 / (주)성지문화사 CEO

## ●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79 \_\_\_\_\_ 교과서 그림 들여다보기 / 박희숙

## ● 자 료

- 84 \_\_\_\_\_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87 \_\_\_\_\_ 교육과학기술부 홍보 자료  
89 \_\_\_\_\_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수상작 및 심사평

- 101 \_\_\_\_\_ • 연구재단 소식  
102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03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104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기초냐 창의성이나



글 | 권재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창의성’이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화, 변화, 융합, 지식 기반, 첨단 등의 용어들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창의성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자, 정치인, 기업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독창성 또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우리 교육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시류에 편성하여 새로운 발상을 쏟아 내고 있다. 우리 교육은 암기 위주와 타율적인 학습의 관습에 젖어 창의성 교육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지금은 창의성 교육이나 영재 교육을 내걸지 않고는 교육의 개혁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창의성은 곧 좋은 것이고 창의성이 곧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믿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때 용감하게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창의성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지금이 바로 ‘아니다’를 말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복잡하다. 그중에서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학교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에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교사이고,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교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에서 규율이 무너진 것이다. 규율이 서지 않으면 교육다운 교육은 어렵다.

학교에 규율이 무너졌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기초 교육이다. 모든 일에서 기초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건축에 있어서도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집도 좋은 벽돌을 사용해야 튼튼한 집이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수월성 교육, 창의성 교육, 영재 교육도 기초가 된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란 무엇일까? 기초 지식이란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말한다. 비근한 예로, 어느 나라나 국어 교육을 중요시한다. 국어가 기초이기 때문이다. 국어가 기초인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듣기),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고(말하기), 자기의 생각을 글로 진술(쓰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이 기초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기 때문에 12년 동안의 보통 교육을 받고도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어떤 외국인이 평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우리의 국어 교육이 이 기초를 등한시한 결과이다. 문장도 되지 않는 글들이 출판물 속에 수도룩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리고도 노벨 문학상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어만이 아니다. 모든 과목에서 기초가 부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에서 헛간방이 들었다는 말이다. 이래 가지고는 창의성 교육도 영재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다.

기초 교육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기초는 쉬운 내용이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습득이 되지 않는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다. 기초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습득이 된다. 이 반복적인 훈련은 학습자에게 재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재미없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부에 재미가 붙는 것은 이 기초를 습득한 이후이다. 테니스도 자세를 만들기까지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이 연습 기간 동안에 테니스가 재미있기는 어렵다. 이 어렵고 재미없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재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 기초를 습득한 후에 자기 나름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테니스를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극소수의 영재만이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모든 사람을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은 기초를 철저히 가르치고, 이 기초가 된 바탕 위에서 창의성 교육을 해야 한다. 기초 교육이 기본이고 여기에 더하여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기초 교육만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기초 교육을 하면서도 창의성 교육을 병행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초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초 교육이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수업 시수를 포함한 교육 기간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창의성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기초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 교육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공교육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면, 이 황폐화된 기초 교육의 복원보다는 모두 창의성 교육 또는 영재 교육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초 교육이 회복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영재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일반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기초 교육을 살리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규율이 회복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들어가 보면 기초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잘못해서 이 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를 등한시한 데서 이 위기가 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연**

알립니다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점철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구)에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9월 8일, 그 구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함으로써, ▷ 「2009 개정 교육과정」개편 추진 계획 발표(2009. 9. 10.), ▷ 제1차 공청회(2009. 9. 29.), ▷ 초·중·고 교원·학생·학부모 및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2009. 10. 14.~10. 28.), ▷ 연구 학교 현장 적합성 검토(2009. 10. 20.~10. 29.)를 거쳐 제2차 공청회까지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은 ▶ 10~13 과목인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7~8과목 정도로 축소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진로 활동·봉사 활동·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며, ▶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외에는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를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 교과목별 20% 범위의 자율적 증감 운영 등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를 개정 방향으로 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우선 6종의 원고를 게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후속적인 특집을 마련해 갈 것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혼용하게 된 것은, 필자들의 의견을 중시함은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개정 연구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2000’으로 불렸던 전례에 따라 우선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 고시 이후에는 당연히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하게 되었다.

## 미래형(2009) 교육과정의 철학과 기본 방향



글 | 허 숙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I. 우리 교육이 당면한 몇 가지 과제

#### 1. 제2의 경제 도약과 선진국으로의 진입

- (1) 우리나라는 광복 후 황무지의 상태에서 지난 60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1970~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1990년대의 철강과 조선 및 자동차 산업, 그리고 2000년대 반도체와 핸드폰 산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 (2)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오랜 기간을 헤매고 있다.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우리의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2의 경제 도약이 필요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 (3) 경제 선진국들 간에는 차세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성장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의 육성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사교육의 팽창과 대책

- (1) 한국 교육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는 사교육의 폐해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 (2) 한국에서 왜 이렇게 사교육이 만연하고 있는가?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육이 양적 팽창과 교육의 기회 확대에 주력해 온 결과, 학교 교육의 내적 부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경쟁 체제가 교육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사교육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한 사회적 경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3)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 배분의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학력주의, 학벌주의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일렬로 서열 매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교 교육의 자율화는 일렬로 서기 경쟁이 아니라 바로 다양화의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대학 입시에 예속된 학교 교육

- (1) 국가 교육과정에 의하면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제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중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학교의 입시 수업은 바뀌지 않는다고 자조하기도 하고, 지역의 교육장이나 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다고 하는 것을 큰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한다.

- (2)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입시 제도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많은 사람은 중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입 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3) 중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예속되는 현상은 대학이나 국가가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권을 갖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중등학교를 다양화하고, 중등 교육은 대학과 무관하게 그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 입시에서 평가권과 선발권의 개념을 분리하여, 평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하고, 대학은 선발권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한 반성

### 1. 우리의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 (1)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등학교 청소년 단계의 학생들은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학교의 교실이나 교사로부터 얻으려고 하기보다 컴퓨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얻고자 한다. 이제 지식이나 정보는 더 이상 교실이나 교사에게 있지 않다. 지식은 온 세상 공중에 무한대로 퍼져 있으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2)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일차적 임무로 해 오던 곳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유령에게 빼앗겨 버린 학교는 요즈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학교로부터 별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 (3)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학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학교가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한참 앞서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19세나 20세기에 머물러 있으니, 학교와 아이들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2. 우리의 학교 교육에는 책무성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 (1) 그동안 우리 교육은 철저하게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다. 요즈음 쓰이는 용어로 말하면 철저한 공급자 중심의 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사이다. 더 큰 체제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또 거의 모든 교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되기보다는 교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교사 집단의 현상 유지 요구가 크게 작용한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모든 결과는 언제나 배우는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린다. 영희가 수학 시험에서 빵점을 받아도 그것은 잘못 가르친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탓이다. 교육 평가는 분명 교육 목표 달성도의 확인이요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의 자료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자기가 가르친 결과라고 반성하는 교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 (3) 최근 교원 평가에 대한 정책과 입법 논란이 시끄럽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평

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교육에서도 책무성 개념이 도입될 때 교육의 개선과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도 끊임없는 성찰을 통한 자기 개선의 노력이 결국은 자기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3. 우리의 학교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

- (1)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된다. 초등학교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이고, 친절하게 교사용 지도서도 국가가 편찬해서 제공해 준다. 서울의 철수나 제주도의 영희는 언제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순서로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도 많은 교과가 필수이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좁다. 교육에서는 양적인 기회 균등, 형식적 평등만을 강조해 왔다.
- (2)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는 개인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내용들을 무의미하게 배운다. 교육이나 지식이 꼭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비추어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다.
- (3) 아직도 우리 교육에는 단편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많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이제 인터넷에 무한정으로 있다. 학교가 컴퓨터나 인터넷과 대결해서 단순 지식 전달하기 싸움을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학교 교육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교육, 그리고 사교육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교육의 영역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II. 미래형(2009)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1. 미래형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1)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 도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가적 먹거리의 창출과 선도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국가는 그 방향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이나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개발해 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 (2)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무차별적 평등 교육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창의 인재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며,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타인을 배려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그러나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이 수월성만을 추구하는 경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월성과 평등성은 교육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은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지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과제는 둘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시키고 균형 잡아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미래형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 (1) 그동안의 우리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알맞은 인력 양성의 논리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아이들을 점수라고 하는 숫자로 획일화시키고, 숫자의 논리로 서열화하는 일에 익숙해 왔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발달을 추구하기보다는 우수 학생과 열등 학생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지난 세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다.
- (2) 그러나 새로운 21세기 사회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 개인의 다양한 성향을 계발하고, 독창적인 활동을 조장하여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다.

- (3)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치는 일보다는 각자의 개인차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미래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 (1) 이명박 정부는 교육 개혁의 첫 단추로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 자율화 조치는 결국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2) 미래형 교육과정은 소위 편제표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 배당의 변경이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교과군, 학년군 개념의 도입이나 학교별 20% 재량 증감 운영 등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3)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획일적 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일렬로 서기 경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교육에 투입된 경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원인을 줄여 가고자 하는 것이다.

## IV. 맺는 말

- (1) 미래형(2009) 교육과정은 미래에 사용할 교육과정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교육과정이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의 상황과 제약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은 변화와 발전 없이 되풀이되고 말 것이다.
- (2)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문서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 현장, 더 나아가 교실 수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원칙을 통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자율과 재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구현하려는 노력과 책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조와 내용



글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 I. 개정 배경의 이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1997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을 수선하는 수준으로 끝남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컸다. 2007 교육과정에는 ‘도로 7차’ 또는 ‘7.5차’ 교육과정이라는 이칭이 뒤따랐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문제를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게 되었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 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이돈희) 산하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위원장 허숙)를 설치하고, 그 아래 교육과정 개정 TF(팀장 광병선)를 두고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 사이에서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측과 단기적인 요구인 총론 개정에 매진하여 총론 시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인사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참 동안 진행되었다. 이미 5월 중순에 총론 개선 의제들은 정리되었으나, 자문회의 내부와 청와대 비서실 사이에서 고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절충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결국 그 결과는 총론에 담길 개혁 의제를 정리하고 중장기 개혁안들(고교 졸업 인정제, 9월 학기제, 초등 전교과 교과 전담제 도입, 대학수능 폐지 등)은 부록 식으로 실는 것으로 낙착되었고, 이 안들은 공청회 형식을 빌려 2009년 7월 24일에 발표되었다.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TF에서 총론 시안이 아닌 개략적인 의제만 담긴 발표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싶어하였다. 자문위 발표안을 그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넘겨서 구체화하도록 하면 그곳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과 연구진들의 ‘입김’으로 개정 의제가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총론 1차 시안을 만들 것을 연구팀(연구책임자 홍후조)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 3차 시안을 다듬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2009년 12월 말 이전에 고시하게 계획되어 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참여한 인사들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첫째, 가급적 총론만을 개정하여 학교의 수업 운영 및 교육 평가를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미 교과별로 배당된 시간과 교과목 명을 존중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고등학교의 국어과와 사회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은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교육 개선을 초래하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 평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합고사나 대학수능에 포함된 교과목뿐만 아니라 문항의 성격이 선다형인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다. 심지어 선다형 평가나 석차 표기를 우리나라 교육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또, 고교와 대학 간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대입 전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다교과 분산 피상 학습하는 현상에 대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두루 공부하여도 담임 교사에 의해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6학기 내내 1~2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학생에게는 학습, 수업, 과제, 시험 부담만 초래할 뿐 교육 효과는 적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를 개혁하여 학생이 동시에 이수하는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학생들의 비효율적인 공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홍후조, 김대석, 2009). 학년군과 교과군은 소교과 집중 심층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넷째, 학생들이 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학년을 올라가기보다 좀 더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갓출 것은 갓추고 승급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 성과에 대한 질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교 졸업 인정제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습득과 이해를 넘어서, 책을 통해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할 줄 아는 능력, 즉 미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더 익힐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받은 인간상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글로벌 창의 인재상을 설정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들—학교의 자율성 확대,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청의 역할, 각종 시험, 교원, 수업, 시설과 설비(교과 교실제), 수준별 수업(무학년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배경 이해에서 또 다른 면은 이번에 만들어진 총론 1차 시안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해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관점을 표방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기준이라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누차 강조되었다. 이를 필자는 ‘중’ 수준 교육과정 만들기라고 하였다. 어느 학교나 큰 힘 들이지 않고 교육과정 기준에 나타난 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준으로서 너무 낮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노릇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 또는 ‘하’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즉, 전국의 1만 1천여 개 초 중등학교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필자의 ‘중’ 수준 교육과정 만들기는 교육 활동의 기준으로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전의 편제와 시간 배당표 및 그 편성 운영 지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개정안에는 이전에 비해 혁신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었다.

## II. 총론 시안의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1차 시안(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홍후조 외, 2009)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1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1) 주 5일 수업제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2)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및 편성 운영 지침을 포함하여 교육 성취, 수업, 교사 역할, 학생의 배정, 교육 평가, 시설과 설비, 지원 행정 등 학교의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 기준, 기대, 권고를 포괄하는 교육 활동 기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다.
- (3) 학생의 발달 단계와 시기별 교육 중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도입하였다.
- (4) 기존 교육과정의 10개 기본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유사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 양식에서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7개로 재분류하였다.
- (5) 초등학교 저학년의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을 재분류하여 사회와 도덕을 통합하고, 체육을 독립시키고, 음악과 미술은 종전처럼 통합하였다.
- (6)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목을 교과 특성에 맞게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이 동시에 이



- 수하는 과목 수를 학기당 8개 이하로 하였다. 현재 다교과 분산 피상 학습으로 학생들은 모든 교과목을 매 학년 매 학기에 배워서, 동시에 이수하는 과목수가 많아서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학습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단위가 아니라 학년군 단위를 따라 배정된 수업 시간 수가 적은 과목들은 이수 학기 수를 줄여서 집중 이수하도록 하였다.
- (7) 학년별 교과별 배당 시간을 존중하되, 학년(군)별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교과(군)별로 배당된 수업 시수를 기준 시수로 바꾸어 학교에서 협의하여 20% 가감(중등학교는 집중 이수를 전제로 주당 1시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기초 기본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국가 수준 학습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및 기초 미달 학생에게는 충분한 보충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9)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치도록 재조정하였다.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군)별 최소 필수 단위를 지정하였다.
-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집중 선택하여 학습하고, 모집 단위별 대학 입학 전형의 특성화를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11)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였다. 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당 3시간 이상으로 확대 강화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4단위로 확대하였다. 특히,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습하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강조하였다.
- (12) 실제 학교 교육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 평가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육 평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명시적 지식 습득과 이해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형 시험을 줄이고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를, 암묵적 능력 체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수행 평가를 강조하였다. 또, 교내에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석차 표기를 모든 학교 급의 평가 결과 표기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교과와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를 표기하는 척도의 수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초등 고학년에서 국어, 수학 등은 좀 더 분명한 평가 결과를, 고등학교에서는 9등급보다는 완화된 평정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고입 연합고사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교육과정 개선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 (13) 학습 부진아,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였다.
- (14) 초등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였다.
- (15)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청의 기능을 결정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교원의 양성과 연수, 학생의 배정, 학교의 시설과 설비, 진로 교육 기회, 특수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 (16)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문서 발간 형식에서 공통기준과 학교 급별 기준을 구분하였다. 특히, 학교 급 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한 여건의 학교로 구분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읽히기 쉬운 체제를 취하였다.

### Ⅲ.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개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 2학년 통합 교육과정의 변화이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과학이,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이 독립 교과화하고, 대신 사회와 바른 생활, 음악과 미술이 통합 교과로 묶이는 형태이다. ‘우리들은 1학년’은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다. 단, 학교는 지역 사회와 학교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교의 돌봄 활동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발달 단계에 맞게 미분화된 교과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현재 5개보다 교과 영역을 더 늘리지 않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였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에 과학과 사회과의 별도 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필자는 아동이 기억의 자기 관리가 가능하면 주로 문해력(literacy, 자국어와 세계어)과 수리력( numeracy, 수셈)을 길러 주고, 주변 생활 속에서 호기심 어린 탐구와 조작 거리를 찾아보는 '생활', 심신 발달을 위한 체육과 예술(음악, 미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아동이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 학습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 후에야 개념, 명제, 원리, 법칙, 이론 등을 담은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 기술 등 주지적 학습, 체계적인 지식 교육을 시작할 수 있기에 저학년에 과학과 사회가 분리 교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에는 국어, 수학, 체육, 예술, '생활' 이, 고학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실과, 예술(음악, 미술 등), 체육이 제안될 수 있다.

#### IV.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개요

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필수, 보통, 의무 교육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규정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 종결되는 것이다. 중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동시에 이수하는 과목 수를 줄여서 집중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었다. 특히, 주당 1~2시간 수업을 하는 음악, 미술, 도덕, 기술 가정, 선택 과목(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정보, 보건 등)을 각 학기별로 수업 시수를 모아서 적은 수의 학기에 집중 이수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음악, 미술, 도덕은 6개 학기에 분산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2개 학기에, 기술 가정은 4개 학기에, 선택 과목은 2개 학기에 집중 이수하여, 학기당 교과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하는 것이다.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집중 이수 대상 과목들은 교사 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개 학년에 걸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교과 특성에 알맞은 수업과 평가, 교사의 담당 학생 수의 적정화, 학생의 수업 과제 학습 평가 부담의 적정화 등의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집중 이수를 위해서는 담임 시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며, 고입 연합고사에서는 이들 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집중 이수가 강조되었지만 하위 과목이 병합된 상태인 과학, 사회과의 집중 이수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즉, 과학이나 사회과의 4균분, 기술 가정의 2균분 등은 언젠가는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또, 집중 이수를 설득하고 이를 관철하는 동안 사실상 대상 교과목을 개설하는 순서나 시기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부족하였다. 다수는 학교에 자유롭게 맡기자고 하지만, 필자의 경우 전 입생의 중복 이수, 반쪽 이수, 이수 기회 상실 등을 방지하여 의무 교육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각 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고, 다른 교과와 연계나 계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설 학년과 학기의 순서를 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교육은 의무, 보통, 필수, 기본 교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교과 간 우열이나 우선성이 없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교과목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체육 쪽 진로를 가진 학생은 그쪽 공부에 중심이다. 우리 교육에서는 이 점이 늘 간과된다. 사실상 수학은 중학교 3학년에 국민 교육적 역할은 끝난다. 이후에 수학의 수준과 범위, 분량을 더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수학을 공부할 학생들이어야 한다. 누구나 세계화, 평생 학습 시대에 하나의 전공 지식과 하나의 외국어를 도구로 하여 살아간다. 자기 주도 학습력을 넘어 협동적 학습력을 갖추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 중학교 이후에도 국 영 수 위주, 문 이과 중심을 계속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이다.

## V.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개요

모든 고등학교의 1학년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교과목 명, 이수 시기, 이수 수준, 이수 분량과 범위를 모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 능력 수준, 적성, 진로가 서로 다르므로 고등학교에서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각 교과에서 최소 필수 단위를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선택 과목의 묶음인 생활 교양에서는 각 15단위를, 체육, 예술에서는 각 10단위를 이수하여, 고교 재학 중에 일반 교과에서 최소 115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기초 영역에서는 45단위, 사회, 과학의 탐구 영역에서는 35단위, 체육과 예술 영역에서는 20단위, 생활 교양 영역에서는 15단위를 최소 필수 단위로 이수하라고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은 지나치게 많이 이수하는 것을, 여타 교과목은 지나치게 적게 이수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가령 수학 15단위는 각 학교나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학생 집단은 현재 수학 I부터 그 내용을 시작할 수도 있고, 체육이나 예술 쪽의 진로를 가진 학생들은 수학을 과잉 학습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등 수학을 5단위, 중학교 수학을 10단위를 총 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번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에 적절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교실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진로는 학생들이 할 공부의 종류, 수준, 범위, 분량을 조절해 준다. 교육의 외적 성과는 학생들이 적성에 알맞게 제 갈 길을 찾았다는 점이고, 교육의 내적 성과는 학생들이 제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된 것은 학생들이 그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을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장차 이공계로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 또는 생물과 화학을, 경상 계열에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수학과 경제를, 인문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윤리, 한문, 역사 등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진로별 선택 과목(집중 과정)을 개설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개선을 통해 대학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소위 문과와 이과를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획일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집중 과정과 거점 학교를 개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대체로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학습 분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이과가 아닌 예체능계 진로가 30% 가까이 되며, 대학 입학 정원의 15%는 예체능 계열이다. 그러나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목계 학교에서는 기껏 1%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개척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 학교가 문 이과는 설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더하여 예술 체육 집중 과정을 부가 설치한 거점 학교를 지역별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또, 수학 과학 거점 학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성, 획일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

더구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진학계 특목계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상의 격차가 심각하고, 일반고의 우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의 90개, 특목계 고등학교용으로 개설된 192개 과목을 하나의 교과로 수준별, 영역별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거점 학교에서도 특목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초 중학교까지는 보통 교과를, 범진학계 고등학교는 일반 교과를, 전문계는 전문 교과를 이수한다. 이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교과는 기본 과목, 심화 과목, 대학 선이수 과목으로 수준을 나눌 수 있고, 학교


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및 능력에 따라 이 중에서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계와 특목계나 교육과정 자율 및 특례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를 115단위 이상 이수하면 전공 교과를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 최소 필수 단위를 약 70단위 이상 이수하고, 전공 교육과정을 70단위 이상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 Ⅶ. 맺는 말

이번 교육과정은 그동안의 총론과 철학을 달리하고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면이 적지 않다. 학년군과 교과군, 집중 이수, 집중 과정 등을 도입하고, 수업에서 실질적인 학습의 유도, 진로에 따른 선택과 집중, 예체능 같이 자기실현의 절정이 조기에 오는 분야의 중등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평가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과의 이해관계나 교사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업무 부담이 늘거나 역으로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은 수업 부담 시수(주당 20시간)가 일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체육, 음악, 영어 등 교과 전담을 안정적으로 투입해 주어야 교육과정 개정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사는 누구나 담임 교사로서 자격과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교과 전담 교사의 복수 자격을 가져야 교원 운용에 탄력성이 생긴다. 소규모 학교를 비롯하여 중등학교 교사들은 교과 상치를 거부해한다. 또, 교육과정 개정으로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장 잘 가르치는 교과목 하나와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교과목 하나의 복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 인프라는 교원들이 이성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장래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교사나 기성세대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차 10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볼 때 우리는 교육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정해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8. 17.).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 홍후조, 광병선, 김경자, 박순경, 김재춘, 소경희, 강현석, 강익수, 백경선, 이승미(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2009. 9. 15.), 교육과학기술부.
- 홍후조, 김대석(2008). 학교 시간 운영의 효율화와 이수 과목 수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연구, 26(4), pp. 73~101.

## 외국의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수 제시 방식



글 |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교육과정 실천의 층위가 다양한 만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구상에서도 그 주안점이 다양할 것이다. 우선 다루어야 할 것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양호성과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그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보다 질 높은 학습 경험일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걸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상은 이들 각 수준에서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존립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질 높은 학습 기회와 학습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60여 년에 걸친 국가 교육과정 흐름 가운데에서 부지불식간에 경직되어 온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체질을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첫째, 교육과정 편제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즉, 경직된 교육과정 편제가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년(군)제와 교과(군)제로 접근하여 학습 집단과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식을 구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가버넌스 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즉, 일방적 지시와 통제 중심에서 분권과 참여로 전환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단위 학교 등 교육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협력함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담은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밝혀 주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떤 내용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학습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국가 교육과정의 중핵적 메시지를 표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은 늘 교육과정 개선 논의의 초점으로 자리해 왔고, 지대한 관심 대상이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편성 주체의 집단과 인사들이 지니고 있는 편성에 대한 의도를 밝히며,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유형을 알아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습 영역의 비중을 알 수 있게 한다(이정섭, 1996).

우리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 설계보다는 주어진 편제에 시간 배당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의 경직성을 면치 못해 왔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교육과정 실행자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제가 된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다 발전적인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리보다 먼저 분권화, 자율화를 시도해 온 외국의 선진 교육과정 사례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I. 외국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과 시사점

각 나라의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간 배당 방식은 각국의 교육 철학과 이념, 비전, 교육 목적, 교육 체제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의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영국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편제는 주요 단계(key stages)라는 4개의 학년 군으로 편성되고, 주당 최소 수업 시수가 권장되어 있다. 주요 단계 1은 21시간, 주요 단계 2는 23.5시간, 주요 단계 3, 4에 해당하는 12~16세의 학생들에게는 24시간이 권장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수업 시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만큼 수업 시수는 단위 학교 재량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어느 학기와 어느 학년에서 어느 교과목을 학습할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단위 학교인 점에서 학기별, 학년별로 모든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학습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위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와 상관없이 과목별 학습 범위와 영역, 성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표 1】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편성된 초등학교 수업 시간표의 한 예이다. 초등학교는 주요 단계 1과 2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수업 시간표 역시 단계 1과 2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시수 대비 교과목의 비율이 %로 표기되고, 실제 연간 수업 시수 및 주당 수업 시수가 제시되고 있다.

【표 1】 영국 Eglington C E First School의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당 방식(예시)

교과	주요 단계 1			주요 단계 2		
	시간 비율(%)	실제 시간	주당 시간	시간 비율(%)	실제 시간	주당 시간
영어	36.1(4)	288(32)	8(블록 타임)	27.4(5)	231(40)	6.25(블록 타임)
수학	23.7	189	5.15	23.5	198	5.30
과학	6.6	52.15	1.25	10.1	85.5	2.30
디자인 및 기술 공학	6.4	51	1.25	6.1	51	1.25
역사	2.9	23.22	.40	5.1	42.75	1.15
지리	2.9	23.22	.40	5.1	42.75	1.15
미술	5.6	45	1.15	5.3	45	1.15
음악(찬송가 연 습으로 보강)	2.3(1.15)	18(9)	.30(.15)	4.3(1)	36	1(.15)
체육(수영으로 대체 가능)	7.5	60	1.40	7.1	60	1.40
	1.5	12	.2	1.4	12	.20
종교 교육(예배 시간 으로 보강)	3.4(4.5)	27(36)	.45(1)	3.6(4.3)	30(36)	.50(1)
여행 시간(수영)	1.1	9	.15	1	9	.15
총 계	100	798	22시간 10분	100	843	23시간 25분

## 2. 미국 루이지애나 주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1~3학년, 4~6학년, 7~8학년으로 형성되는 학년 군으로 교과 편제가 제시되며 고등학교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 외국어에서는 주당 권장 시수(분)가, 체육, 보건, 음악, 미술 및 공예에서는 주당 필수 시수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지나치게 일부 교과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학년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만 7~8학년에서는 일일 수업 시수가 6시간제나, 7시간제나에 따라 달리 제시되고 있다.

【표 2】 미국 루이지애나 주 1~8학년의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시수 배당 방식

교과	학년	1~3학년		4~6학년		7~8학년			
						(일일 6시간제)		(일일 7시간제)	
		권장 시수	필수 시수	권장 시수	필수 시수	권장 시수	필수 시수	권장 시수	필수 시수
영어		825		600		550		550	
수학		300		300		275		250	
과학 및 사회 (7학년-미국 연구, 8학년-루이지애나 주 연구)		225		225		275		250	
외국어		150		150		275		250	
체육			150		150		150		150
보건, 음악, 미술, 공예			150		150		125		250

##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편제는 교과군이나 교과 영역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수업 시수에 있어서는 학년군별로 차이를 보여

【표 3】 싱가포르 5, 6학년의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간 배당 방식

교과	주당 수업 시수(1 수업 단위 시수는 30분)		
	상급 수준	중급 수준	하급 수준
<b>평가 대상 교과</b>			
영어	12	13	16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10	8	4
수학	9	10	13
과학	5	5	3
<b>비평가 대상 교과</b>			
공민 및 도덕 교육	3	3	3
사회	3	3	3
미술 및 공예	2	2	2
음악	1	1	1
체육	2	2	2
보건 교육	1	1	1
조회	1	1	1
<b>총 수업 시간</b>	49	49	49



주고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필수 교과와 학년별 주당 수업 시수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에는 학년별이 아닌 학생의 교과 성취 수준 (EM1-상급, EM2-중급, EM3-하급)에 따라 주당 수업 시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가 대상 교과와 비평가 교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표 3】 참고). 이는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양의 수업 시수를 권장하는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과 수업 시수를 달리 처방함으로써 소위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제 운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에서는 학교 계열(특별/속성, 일반 인문계, 일반 실업계)과 평가 여부에 의해 이수 시간이 달리 표기되고 있다. 중학교 3~5학년에 해당하는 상급 중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제시되나 계열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시수가 추가되어 있다.

#### 4.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 영역과 그에 해당하는 과목 군으로 구성되며, 학년군별 접근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학습 사이클(초등학교 1~2학년), 심화 학습 사이클(초등학교 3~5학년)로 구성되고, 사이클별로 수업 시수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편제표에서는 일부 교과에 한하여 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주당 최소 수업 시수와 최대 수업 시수를 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문학, 언어, 외국어, 역사 및 지리에 한하여 각각 30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운신의 폭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수업 시수를 최소와 최대의 범위로 제시함으로써 학교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표 4】 프랑스 초등학교의 심화 학습 사이클의 편제와 수업 시수 배당 방식

영역	과목	최소 시수	최대 시수	영역별 시수
프랑스어 인문 교육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	4시간 30분	5시간 30분	12시간
	언어 학습(문법, 어휘 등)	1시간 30분	2시간	
	외국어	1시간 30분	2시간	
	역사와 지리	3시간	3시간 30분	
	공동 생활(정규 토론)	30분	30분	
과학 교육	수학	5시간		8시간
	실험 과학 및 기술	2시간 30분		
예술 교육	음악 교육	3시간		3시간
	시각 예술			
체육		3시간		3시간

기초 학습 사이클에서는 매일 2시간 30분씩 읽기 및 쓰기(작문과 보고 쓰기)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심화 학습 사이클에서는 통합 교과 영역으로서 ‘언어와 프랑스 어 습득’(전 교과에서 총 13시간), ‘시민 교육’(전 교과에서 총 1시간 및 주간 토론 30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캐나다 마니토바 주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필수 교과 영역과 선택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며, 1학년에 서 8학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1~8학년의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

교과		1~6학년	7~8학년
필수	영어	35%	27%
	수학	15%	17%
	과학	10%	13%
	사회	10%	13%
	체육 보건 교육	11%	9%
	예술 교육	10%	8%
선택	기본 프랑스어, 기타 언어, 원주민 연구 등	9%	13%
수업 시수 총계		100%	100%

교과별 수업 시수는 시간이 아닌 비율로 제시되나, 연간 최소 수업 시수의 총량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위 학교 상황에 따라 전체 수업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있어서 적어도 공통 필수 교과에 주어지는 비율은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5개국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의 특징을 교과(군) 또는 교과 영역, 학년(군), 시수 제시 방식(최소 최대 또는 필수 권장)에 비추어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 비교

국가	교과(군)	학년(군)	시수 제시 방식	기타
미국 루이지애나 주	· 단독 교과: 영어, 수학, 외국어 · 교과군: 사회 과학, 보건 음악 미술	· 학년군별 접근 1~3학년 4~6학년 7~8학년	· 주당 시수 · 교과(군)의 성격에 따라 최소 권장 시수 혹은 최소 필수 시수로 제시	· 주지 교과 편중 방지, 균형적 이수 강조
싱가포르	· 주로 교과별 · 교과군: 1~4학년에서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와 공민 및 도덕이 각각 하나의 교과군으로 운영	· 학년별 접근 · 5~6학년의 평가 대상 교과에 한하여 성취 수준별 시간 배당	· 주당 시수 · 5~6학년의 시험 대상 교과의 경우 성취 수준별로 시수를 다르게 설정	· 매학년 교과 이수는 아님(과학은 1~2학년, 사회는 2~3학년에서 미이수) · 교육과정 편제와 국가 수준 시험과의 유기적 연계 강조
프랑스	· 단독 교과: 체육 · 교과군: 예술(음악 미술), 과학(수학 실험 과학 기술) · 교과 영역: 프랑스어와 인문 교육 -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 - 언어 학습(문법, 어휘 등) - 외국어 - 역사와 지리 - 공동 생활	· 학년군별 접근 1~2학년 3~5학년	· 주당 시수 · 예술과 체육은 고정 · 교과 및 교과군별 최소~최대로 제시, 교과 영역별로 총 시수를 제시	· 교육 내용의 특성 에 따라 교과, 교과군, 교과 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시수 제시 방식을 달리함.

캐나다 마니토바 주	· 교과별	· 학교급별 접근 1~6학년 7~8학년	· 총량 미제시 · %로 제시	· 해당 학교급에서는 학년 간에 동일하게 운영
영국	· 교과별	· 학년군별 접근 1~2학년 3~6학년 7~9학년 10~11학년	· 학년군별 주당 총 수업 시수만 제시 권장	· 단위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편성에 자율성이 많음.

### 6. 외국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의 시사점

많은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교육 개혁의 흐름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의 독특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국가 및 주 수준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 시수 배당 방식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철학, 이념, 비전, 교육 목적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편제 제시 방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의 제시 형식은 해당 국가가 표방하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이념, 비전, 목적, 교육 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철학과 이념 및 비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뚜렷이 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이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이 그 모든 것들이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편제의 구체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현행보다 개선된 편제 및 시간 배당 제시 방식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둘째, 책임을 전제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제시 방식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많은 국가들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식을 도모하는 점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국가도 자율을 명목으로 방임을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율은 국가적 일관성과 통일성의 기초 아래 단위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며, 융통성의 바탕에는 국가, 사회,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노력 역시 국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로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편제 구상 방식 역시 국가 교육과정 수준의 리더십을 담보하면서도 단위 학교와 지역에 교육과정 자율성의 여지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을 고민하는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곧 학교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제시 방식은 교육과정 관련자들 간에 소통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공통적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체 열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큰 그림으로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은 이제 고립과 단절이 아닌, 소통과 연계의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 Ⅲ.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 개선의 방향

오랜 기간 학년별 교과별로 최대한 잘게 쪼개어 구획하고, 또한 제시된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로 규정해 놓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수 배당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가깝


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간 우리에게 익숙해 온 교육과정 편제표는 한 마디로 ‘고립과 단절’을 연상케 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표방해 왔다. 이제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연계’를 촉진하는 개방적 이미지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편제의 중형 축을 다루기 위한 대안적 방식이 요구되며, 다행히 그것은 금년 초부터 ‘미래형’이라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금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특징적인 한 가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에서의 획기적 변화, 즉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의 ‘대강화’로 칭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을 대강화하는 폭은 앞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경직된 방식에서부터 학년군 접근과 교과군 접근을 동시에 적용하여 가능한 한 성글게 구성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구안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방식의 대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 및 학년군별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구획하여 시간을 배당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학교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수업 시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학년군별 접근 방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이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 및 교과군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와 활동이 다양화, 다기화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단독 교과와 교과군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군 접근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과의 상호 단절은 교과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며, 상호 불간섭 내지 소통 부재 문화를 형성하여 교과 간에 과도한 중복과 비연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서 초등 사회과의 ‘축적’ 개념은 ‘비와 비레’의 원리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지만, 초등 교육과정에서 전자는 4학년 사회과에서, 후자는 6학년 수학과에 제시됨으로써 학습 경험의 논리적 연계에 방해가 된다. 교육과정상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내용의 학년 간 교과 간 연계나 통합은 교사 몫으로 남겨졌으나 실제로 교사의 재구성 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교과나 영역을 최대한 잘게 나누어 일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과군별 접근을 가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편제 제시 방식과 함께 수업 시수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다면적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교육과정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수업 시수 제시 방식의 개선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국가가 최소한으로 수업 시수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수업 시수의 적정 비율은 70% 정도(32.4%), 50% 정도(29.1%), 60% 정도(22.9%), 80% 정도(16.8%)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순경 외, 2008). 즉,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최소 수업 시수를 설정하되 지역과 단위 학교 상황에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증감의 범위를 허용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성격상 최소 필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과(군)와 그렇지 않은 교과(군)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각 교과의 수업 총량을 범위로 지정했을 때, 특정 교과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그 외 교과에 대해서는 최소치를 극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평가와 직결된 교과에 편중될 경우, 그 외의 교과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가 다양화, 다기화되고 학습자 집단의 특성 또한 다양해지며 개인차를 보일 때,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과정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교육과정 설계가 경직화, 구획화될수록 지역과 학교, 교사의 사고를 제한하며, 교육과정 전문성 계발과

지도력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 교과와 상호 단절은 교과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며, 상호 불간섭 내지 비소통의 문화를 형성하여 과도한 중복과 비연계를 초래할 수 있다. 여하튼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학교교육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의사소통과 공통적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대토론회 자료집.
- 박순경 외(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 -총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외(2009).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15.

##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

###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

글 | 백경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 들어가며

2009년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등장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많은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학교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의 핵심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축의 변화에 논쟁이 없을 수 없다. 또, 교육과정 정책은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을 시작으로, 학생의 교육을 후원하는 학부모,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대학),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교과서 개발자,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교과와 그 자리매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조직, 하물며 사교육에 관련된 이들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표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교육과정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학교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담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속적인 논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에 대한 지적이 그것이다. 둘째,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몇 가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쟁이다.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의 근거인 교과군과 학년군 그리고 집중이수제의 실효성 문제 및 대상 교과목의 반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축소와 선택 교육과정의 확대에 대한 우려, 학생의 진로별 교육과정 설계의 타당성과 실효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및 논쟁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이는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가 아니거니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긴급한 문제라는 인식에 터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하면 교육과정 실현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이상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그 실효성을 높여 결국 교육과정 개정이 추구하는 우리 교육의 질 제고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처한 학교의 실정과 여건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1960년 이후 지속되어 온 문·이과식 교육과정 운영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교육과정 실현 방안 및 전제 조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항상 불거져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현재 학교의 실정과 여건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만약 국가 수준에서 야심차게 설계한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서 실현될 수 없다면 그 교육과정은 재고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제일선에서 실현하는 기관으로, 결국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교수·학습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항상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는 극단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학교 실정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교육과정 개발자의 현실에 대한 무지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능동적 변화를 싫어하는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그 원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자는 학교의 여건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고, 단위 학교나 교사는 이번에도 학교의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불신이 오랜 관행처럼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자를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지와 횡포의 대상으로, 단위 학교와 교사를 변화를 싫어하거나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기능 확대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라면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 교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신분의 불안을 느끼는 교사들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복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교원 양성에서부터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 체제 정비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가 그 취지를 살려 단위 학교와 학생들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실현을 통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평가 체제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 충원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대하여 학교별 특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 임용의 제도적 안정을 위해서 현행의 정규 교원 임용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 시간 강사의 임용 등은 학교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거나 우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항상 제기되어 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문제도 장기적 계획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위 학교의 교원, 시설 등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또, 근본적으로 학교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자원을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밖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로 끌어오든지 학습의 장을 학교 밖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는 학교 밖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어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교 밖의 교육 활동은 사회 현장에서 체험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의 ‘교육 자원 지도(resources map)’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 자원 지도’에는 해당 지역 사회의 자원 활용도, 접근 방식 등을 안내하는데, 이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 학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의 지역 사회 자원 활용은 학생들에게 직업 및 진로 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며, 학생들 스스로 체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후의 관찰 체험 기록 등은 향후 대학 입학 사정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돈민 외, 2009).

특히, 수요가 적어 단위 학교에서 수용하기 힘든 소수 과정인 예체능 과정 진로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도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의 이동(전학) 등으로 상실된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기회 확대 또한 이러한 방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강사,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평가 체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그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해마다 학교 교육과정 작성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역 사회의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지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청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제는 국가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하며, 지역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과정 분권화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여러 가지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첫째, 학교 간 교육 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즉,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일부 사립 학교, 특목고 등 이미 특성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교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는 형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박순경 외, 2009). 즉, 교원들은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행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자율화 촉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박순경 외(2009)의 연구 결과에서 교원들의 경우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나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 못하다. 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나 장학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상세성, 교육청의 규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침이나 장학 자료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를 확대하여도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하지 못하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수준에서 자율화라는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 규제라는 댐의 수문을 열어도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라는 중간의 댐에 묶여 그 물이 단위 학교에 흘러들어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 장학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앞의 두 가지 우려를 줄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

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원 수급, 학생 배정 등에 좀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단위 학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학교 간 역할 배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즉, 학교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의 공유 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literacy)와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leadership)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위 교육과정 개발은 교원이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발휘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 사회의 특성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공교육의 교육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교 교사들의 공동의 참여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공유, 운영의 효율성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경우 현실은 일부 교육과정 담당 부장과 담당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기타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 작성 경험 유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순경 외, 200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을 선진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교 공동체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일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진지한 공동의 의사소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학교장은 단위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모든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진지한 의사소통이 활발히 촉진되는 분위기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및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관련 연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절차의 체계화,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문화 만들기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정을 ‘현실에 대한 소극적 타협’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적극적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사를 돌아보면 교육과정이 사회적 이슈화가 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출발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올해 고시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개정 과정에서 교원 단체의 반대, 교과 간 이해 충돌의 문제, 현장 교원들의 문제 제기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중점에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개정 정신을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의 문제에 항상 부딪쳐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현장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어 왔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교육과정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현실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 최적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현장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논쟁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과정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완벽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정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그 개정 정신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행의 두 주장에 앞서 교육과정 개정의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즉, 현실만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개선이 더디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과정 개정이 현실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타협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분명히 많다면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현실 개선을 위한 과정에 교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의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교육과정의 개선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는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 Ⅲ. 맺으며

그동안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정책의 실현 과정을 통해 얻은 한 가지 교훈은 그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and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그 실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또한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도 그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가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구현됨으로써 우리 교육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 지를 다룬 글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정 실현 방안에 대한 글들의 대부분이 교육 여건, 시설, 교원 등 유형적 준비에 초점을 두고 다룬 반면 이 글에서는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력 제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같은 무형적 준비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 촉진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실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준비를 갖추는 일에 교육계의 총합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1차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돈민 김승보 김진숙(2009). 학교의 지역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 제4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 박순경 이근호 백경선(2009). 교육과정 분권화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미간행.

##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교과서의 모습 전망



글 | 김태훈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장)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알려진 2009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 부는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과서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 원고를 통하여 향후 교과서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우리 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초 중등교육법 제29조이다.<sup>1)</sup>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리 부는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한다.

### 1.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 1. 기본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학기당 이수 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시할 때 학년군 및 교과군 설정
- (2)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폭넓은 인성 교육 추구
  -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
  - 중학교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은 교과 영역으로 편성
  - 고등학교 교과 재량 활동은 폐지
- (3) 고등학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9년(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으로 함.
  - 고등학생은 진로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가능
  - 고등학교 교과 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으로 구분
  - 현행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일부(국어, 도덕, 사회, 과학)를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
- (4)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시간 단위 배당을 교과목별 20% 범위 안에서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허용
  - 단위 학교가 보통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전문 교과목을 편성하는 권한 부여 등

#### 2. 교육과정 개정 범위 및 교과서 적용 원칙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통상적으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각론) 전체를 동시에 개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필요한 교과에 대해서만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초등 영어

과의 경우 2006년에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2008년에 수업 시수 확대를 위해 총론에서 해당 학년 시간 배당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사회과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반 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 보안을 위해 2009년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대부분의 개정 방향을 총론에 적용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 개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교육내용의 추가, 기존 교육 내용의 삭제보다는 관련 교과 및 영역별 재구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방안의 원칙은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가급적 사용 기한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 II. 교과서 편찬 제도 개선 방안

이 원고에서는 ‘교과서 편찬 제도’라는 용어를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교과목에 따라 해당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때 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한 어떤 종류의 도서로 개발할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1. 추진 경과<sup>2)</sup>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어떤 종류로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게 된다. 우리 부에서는 2007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지금까지 네 번의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최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구분 고시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고시는 4회에 걸쳐 있었는데, 이 중 2007년 6월 22일자 고시문을 제외한 3회의 구분 고시가 모두 인정 도서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7년 8월 7일자 구분 고시를 통하여 중등학교 교과목 중 검정 도서로 구분된 교과의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 전문 교과 상업 정보 계열 중 1책(전산 회계), 과학 계열 중 1책(과제 연구)을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대거 전환한 2007년 8월 7일 구분 수정고시에 따라 시 도교육청 인정 도서심의회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8일 구분 고시를 통하여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목의 지도서는 제외)를 시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정 도서(일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사용 학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8월 말) 후 인정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심사 채택 교수 학습에 필수적인 보조 자료(CD)를 교과서(또는 지도서)와 함께 개발하도록 하였다.<sup>3)</sup> 또, 중등학교 특별 활동 지도서를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21일자 구분 고시를 통하여 우리 부는 ‘교과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국정 도서의 일부를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추가 전환하였다. 과학 및 예술 계열 전문교과 국정 도서를 모두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전환하였고, 외국어 계열의 경우 교육과정 상 필수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도서를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전문 교과는 국정 도서 249책, 검정 도서 14책, 인정 도서 154책으로 구분되었다. 국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 이외에도 계열성 있는 일부 과목의 도서를 1권으로 통합 개발하고, 일부 도서는 기존 도서를 수정(개편)하도록 구분 고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지난 3회의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통하여 인정 도서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기별로 교과서의 편찬 제도별 종수<sup>4)</sup>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계
제7차 교육과정	719	188	48	955
2007 개정 교육과정	537	181	191	909

## 2.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 제도 검토

또, 현재까지는 국정 도서 체제로 개발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에 대해서도 한국통합교육학회 등에서는 검정 도서 또는 인정 도서 체제로 점진적 자율화가 필요하다<sup>5)</sup>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용 도서를 검정 도서로 전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좀 더 많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도서 또는 인정 도서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인정 전환 확대 검토

현재 우리 부는 2009년 교육과정 개정 대상에 포함된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인정 도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9년으로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목은 원칙적으로는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는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집필자의 자율성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인정 도서로 개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검토의 배경이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전문 교과인 경우에는 수요가 적어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현장 교원이 참여하게 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출판사의 개발 수요가 있는 일반 교과인 경우에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4. (교사용) 지도서 및 전자 저작물 편찬 제도 검토 필요

이번 기회에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편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교사가 사용하는 지도서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서 발행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구분하거나,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자율 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 지도서, 전자 저작물 등의 편찬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Ⅲ. 교과서 가격 제도 및 유통 체제 개선 방안

## 1. 교과서 가격 제도

1950년부터 도입된 현행 교과서 가격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문 부수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고시하는 제도(일명 가격 사정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가 교과서의 가격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 및 이에 따른 물가 정책에는 기여하였으나,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발행사(저작자)의 개발 및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급변하는 경제 여건의 시장 변화에 전문 출판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 체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우리 부는 검정 도서의 교과서 가격 사정제 및 유통 체제(이익금 균분제) 개선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당초에는 민간 발행사가 제작하는 검정 도서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일정 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발행사가 정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근거 규정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권고 의견<sup>6)</sup>을 수용하여 저작자와 약정한 민간 발행사가 검정 도서의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자율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가격 사정제에서는 주문 부수 및 규정에 의거 가격이 자동으로 산정되는 구조이지만, 가격 자율화 제도 하에서는 발행사가 가격을 결정<sup>7)</sup>하여 검정 심사본을 제출하고 검정 합격 후 학교(교사)에서는 해당 교과서의 가격 및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문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개정 공포)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검정 실시 공고하게 될<sup>8)</sup>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구입하여 주는 초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부모가 구입비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교과서 가격에 대한 예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발행사 입장에서 교과서의 질을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교과서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는 교과서 가격 제도가 바뀔 때에 따라 검정 도서의 채택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교과서 채택에 대하여 단순히 구입비를 정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온 교육청(지역 교육청 포함)의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2. 교과서 유통 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검정 실시 공고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게 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적용받게 되므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1982년부터 유지해 오던 교과서 공동 인쇄 발행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2012년 3월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서는 발행사 개별 인쇄 발행제 및 발행사가 가격을 결정하여 검정 출원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다.

인쇄 발행 제도와 함께 우리 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통 체제 개선 방안에는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 이미 발행된 교과서를 학교 현장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공급’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는 교과서 공급이 교과서 편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급 조직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정 도서 공급 조직과 검정 도서 공급 조직이 서로 달랐다.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의 공급 조직이 이원화되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공급 조직 이원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도서로 개발되는 도서가 초등학교에도 공급되기 시작하는 2011학년도부터는 공급 조직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늦어도 201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V. 교과서 제도 및 모습에 대한 전망

향후 교과서 시장에서는 인정 도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부는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정 전환 확대 취지에 부합되는 인정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최초로 적용되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sup>9)</sup>부터는 교과서 가격이 발행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발행사가 개별 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모습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서 주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서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참고서 및 문제집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하는 교과서도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과서가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면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예를 들면, 학생이 교과서를 학교와 집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방식, 매년 쓰고 버리는 교과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 새로운 편찬 제도, 가격 제도 등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는 그 모습이 다를 것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교과서 활용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 사용자인 학생,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 교과서 활용 방식 등이 달라져야 하고, 교과서 주 구입자인 교육청(학교) 및 학부모의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교과서 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부에서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9년 9월 15일 교과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교과서 선진화 T/F를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다. 추진 과제별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진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하여 오던 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이해 관계자의 반발과 이에 따른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차지하는 교과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과서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부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1)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원고(이화성, 교과서연구 제57호)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하였음.
  - 3) 초등 5, 6학년 음악 지도서에 음원 자료(CD)를 포함시키고, 중등 영어 교과서에 듣기 자료(CD)를 포함시켰음. 또, 초등 영어 교과과목의 경우 교사용 보조 자료(CD)를 삭제하는 대신 학생용 전자 저작물(CD)만을 검정 도서로 구분 고시하였음.
  - 4)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문에 표기되어 있는 '심의 없는 인정 도서' 만을 통계에 포함하였으며, 검정 도서의 경우 1종에 여럿의 저작자 또는 발행사가 존재할 수 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 중이므로 저작자(발행사)별 책수는 통계에 신지 못하고 교과목별 도서의 종수만을 표기하고 있음.
  - 5) 초등 통합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발전적 개발에 대한 의견(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건의문, 2009년 9월 30일) 중 '3. 통합 교과서는 국정→검정→인정 제도로 점진적 자율화가 필요하다'를 인용함.
  - 6)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우리 부가 제시한 가격 상한 선에 맞추어 발행사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며, 당초 의도한 질 개선 효과에는 의문이 있고, 가격 상한 제도 다른 방식의 정부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판정을 내림.
  - 7) 교과서 개발비, 예상 주문 부수 등을 감안하여 발행사가 가격을 미리 정하여야 함.
  - 8)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 중 고시될 예정이므로 검정 실시 공고는 2010. 1월로 예상됨.
  - 9)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및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어떤 방식(검정 도서 또는 인정 도서)으로 편찬되더라도 가격 및 발행 제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 쟁점과 발전 방안



글 | 류청산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I. 미래 사회의 전망

‘2100.org’라는 미래 연구소는 1900~1940년대를 생산 사회, 1940~1980년대를 소비 사회, 1980~2020년대를 문화 연예 사회, 그리고 2020~2060년대를 교육 사회로 예측하고 있다. (박영숙, 2008, p. 140)

미래의 학생들은 대부분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개별 학생 지도가 보편화되며,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많아 학생의 재능과 지적 능력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르치고, 학생들은 특별 영양분이나 인공 지능 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지적 능력을 키운다. (박영숙, 2008, p. 136)

미래의 교사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지 과학자, 행동주의자, 첨단 과학 기술 전문가, 연예인 등과 같이 다양한 직업인들이 교사가 되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고 나면 선진국에 남는 산업은 금융과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 뿐이다. 이 중에서도 교육 시장은 가장 크게 확장될 산업이며,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교사로 전입되어 들어온다. 교육은 멋지고 지식은 쿨하고, 오로지 지식만이 중요하며 배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

수많은 지도자와 교원들 중에서도 개별 학습을 위한 지역 사회의 교사가 있는 반면, 인기 있는 교사나 교수는 전 세계 사이버대학 등에서 수천, 수억 명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일종의 신연예인 탄생이 예측된다.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재미도 있고 유익한 것을 가장 최신의 지식과 함께 전달하는 사람들이 인기 교사, 인기 교수로 등장하게 된다.

인공 지능이나 아바타 등과 같은 e-teacher가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이런 아바타를 프로그래밍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 지능을 돕고 이끌어 가는 조력자가 필요해진다. (박영숙, 2008, p. 138)

새로운 직종에 대비한 교육 제도에 유연화는 필수이고,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의 6-3-3-4라는 기본 학제는 무의미해진다. 취업도 졸업증이 아니라 개인의 포트폴리오, 인증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평생 의무 교육 제도로 대부분 학교는 고령 인구의 학습으로 전환된다. 현재 호주에서는 65세 이상인 전문대 과정 인구가 3%를 차지하지만 5년 후에는 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지만 첨단 과학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로 인해 1년 전의 지식이나 기능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려는 늙은 학생, 즉 중년층과 고령층의 인구가 학교로 들어오는 평생 교육의 시작으로 실질적 학생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요구나 욕구, 능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박영숙, 2008, p. 13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

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 이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기별로 추구하는 방향과 성격이 발전되어 왔다.

625 전쟁 이후 마련된 제1차~제6차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을 주도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던 제7차 교육과정은 6-3-3-4의 기본 학제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크고 작은 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생시켰다.



★ 적시 학습: Just in time learning

【그림 1】 교육과정기별 성격과 특징 비교

이에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국가가 주도하였던 교육을 단위 학교가 주도하도록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큰 틀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교과서와 교과들은 현행대로 존중하면서 각 급 학교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교육과정 개정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 공통 기본교육 기간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조정하여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준비 교육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무학년제와 교과 교실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조기 졸업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 중학교 단계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학습량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였으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 학력 미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년군제를 적용하여 기초 학력 책임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입학 사정관 제도를 포함한 대학 입시 제도와 무학년제 고교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구안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Ⅱ.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

〈표 1〉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교육 관련 국정 지표인 ‘인재대국’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후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습자 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 자율과 분권, 경쟁과 개방, 수요자 중심의 평생 교육을 ‘신발전 체제’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교육 관련 국정 지표

국가 비전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 리더 국가, <b>세계 일류 국가 건설</b>		
	1.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 2.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 사회 3. 고품격의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		
국정 철학	관념과 이념보다 경험적 실증을 중시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b>‘신발전 체제’</b>	구분	구발전 체제	신발전 체제
	교육 전략	평준화, 보편성의 대량 생산 체제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인재상	산업화 시대 범용 인력의 양성	지식 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인재
	교육 내용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평생 교육
	교육 제도	획일화, 평준화	다양화, 경쟁과 개방
	교육 행정	관치	자율, 분권
교육 관련 국정 지표 <b>‘인재 대국’</b>	1. <b>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b>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대학 자치, 고교 다양화, 국가 장학 제도, 교원 능력 제고)		
	2. <b>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 한국 건설</b> (대학 연구 역량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과학 기술 투자 확대/효율성 제고, 세계적인 과학 인재 양성/유치)		
	3. <b>평생 학습의 생활화</b> (평생 학습 계좌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 개발 체제 구축)		

출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백서 1-성공 그리고 나눔》. pp. 33~47, pp. 167~185.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관념과 이념보다는 경험적 실증을 중시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 리더 국가,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가의 비전과 실천적 교육 전략을 반영하여 인재 대국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내년 하반기에는 5년 뒤인 2015년부터 전개될 후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후기 정보 사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제 중심의 적시 학습형 교육과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 Ⅲ.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 쟁점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

적 실용주의 입각하여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실용적으로 개발된 개정 교육과정이 의도한 바대로 교육 현장에 착근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년군제와 교과군제의 관점

- (1) 초등학교의 수업 시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2) 유경력 교사가 저학년에, 초임 교사가 고학년에 배치되는 역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 (3) 교과군제의 도입으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의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4) 교과군제로 인한 과목의 축소로 심화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지는 않겠는가?
- (5) 중학교의 유사 교과목들 간의 과목 통합이 아닌 교사 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6) 집중 이수제에서 담임 교사가 자신의 반에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도상 문제는 없는가?
- (7) 돌봄 활동은 초등학교와 각 지역 동 또는 직장 단위의 탁아/보육 시설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 2.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관점

- (1) 맞춤형 교육과정(교과 교실제)으로 비전공 교사의 '상치' 교육 문제 발생이 없겠는가?
- (2) 전문계와 일반계의 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3) 내신 9등급 및 대입 제도 개선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3.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권 확대의 관점

- (1) 최저 이수 단위만을 지정할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 영 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교과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2) 그러므로 “특정 교과가 다른 교과의 2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3) 각 교과별 최소 이수 단위를 정수형으로 지정하지 말고 범위의 개념인 ‘5단위 이상’ 등과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4) 인성 교육은 범교과적 학습 요소인가?  
그렇다면 녹색 교육은 범교과적 학습 요소인가? 독립 교과적 학습 요소인가?  
진로 교육이나 환경 교육 역시 범교과적 학습 요소인가, 독립 교과적 학습 요소인가?
- (5) 학업 성취도 평가와 현행 대학 입시 제도 아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 (6) 교장의 독주와 권력화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7)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20%)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우려는 없는가?

### 4. 대학 입학 시험 제도의 관점

- (1) 대학 입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상(안)인가?
- (2) 현행 대입 제도의 변화가 없고, 한 줄 세우기 문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성/창의성 교육이 가능한가?
- (3) 입학 사정관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5. 교원의 전문성 확보 관점

- (1)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가?
- (2)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과 담임제 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3) 복수 자격증 보유 교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질 관리를 할 것인가?
- (4)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수요 예측,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6. 교육과정 운영 체제 내실화의 관점

- (1) 학년도 개시일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가?
- (2) 글로벌 학사 일정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3) 학교 간 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집중/대체 이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7. 교육 평가 체계의 개선

- (1) 현실적으로 학습의 과정과 질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가?
- (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 (3) 내신 성적과 외부 평가(대학 입학 수능) 결과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는가?
- (4) 조기 교육과 유급 제도를 교원 실명제와 연계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모형인가?

## 8. 정책 구현 효과의 관점

- (1) 현행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 교육과정으로 적절한가?
- (2)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육과정인가?
- (3)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과정인가?
- (4) 다양한 인성 교육(체험, 봉사, 진로 교육 등)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인가?
- (5) 교과목의 축소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 (6) 축소되는 교과인 음악, 미술, 도덕, 실과, 기술/가정 교과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인가?
- (7)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성 관련 교과목을 줄인다는 비판에 명분이 있는가?
- (8) 교과목 축소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의 내용과 학습량을 조정할 수는 없었는가?
- (9) 교과목 수를 더 줄일 수는 없었는가?

## 9. 기타

- (1) 교육 제도 개혁이 교육과정 개혁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교육 제도 = 학급 규모, 교원 자격 제도, 의무 교육 연령, 교원 수급과 질 관리, 대학 입시 제도, 산학연계 학교의 운영, 교원/학교 평가 등
- (2)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3) 여론 조사 문항의 타당도, 표본의 대표성 등에 대한 방어 논리는 없는가?

## IV. 미래형 교육과정의 발전 방안

앞에서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의 핵심 쟁점을 토대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총론, 초·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서, 단위 학교 자율권, 대학 입시와 사교육비, 학생과 학부모, 교원, 기타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발전 방안

영역	발전 방안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단계별 최소 성취 수준만을 제시</li> <li>- 주5일제와 현행의 격주 5일제별로 총 이수 단위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 있음.</li> <li>- 조기 교육과 유급 제도를 교원 실명제와 연계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수준별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의 개발을 고려</li> <li>-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을 교과 중심에서 발달 중심으로 전환 검토</li> <li>- 대안 교육과 홈스쿨링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li> <li>- 국내외 유학 및 교환 학생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학기의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li> </ul>
초등/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으로는 교과군으로 묶이는 교과들 간의 조화로운 선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li> <li>- 장기적으로는 교과군으로 묶이는 교과들 간의 화학적 내용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li> <li>- 범교과 학습 요소(인성 교육, 녹색 교육,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li> <li>- '학년군'이라는 용어 대신 '학년 모듈'이라는 용어 사용</li> <li>- 돌봄 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수면실을 설치</li> <li>- 초등학교 1~2학년군제의 경우 학교의 간부 또는 부장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맡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li> </ul>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계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li> <li>- 무학년제에서 성취 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li> <li>- 현행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결정을 중학교 3학년에 적용</li> <li>-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자율 증감은 '백분율'로 명시하기보다는 '단위 수 증감' 방식 운영</li> <li>- 교과목 신설 절차의 간소화</li> </ul>
창의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 활동 및 재량 활동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정</li> <li>-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방안이 마련(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속적인 교사 연수, 시설 및 예산의 지원 등)</li> <li>-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여 초중고를 통일</li> <li>-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임시 설명회 시간 등과 같이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li> </ul>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교과서는 국정으로 유지하되, 개발 수요가 있는 교과서는 검정으로, 보다 유연한 체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li> </ul>
단위 학교 자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장 교사의 평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교장에게 인사 및 학교 운영 전반의 권한과 책무성을 부여</li> <li>-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li> <li>-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자율 권한과 책무성을 명시</li> </ul>



대학 입시 사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교육 평가 체계, 대학 입시 제도의 연동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li> <li>- 인턴 교사(대학생 도우미)를 보충 및 심화 학습에 투입하는 방안</li> </ul>
학생/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학습권/부모의 교육권이 교사의 교수권과 학계의 독점권을 견제하는 방안 마련</li> <li>- 학교 간 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집중/대체 이수 방안을 고려</li> <li>- 학생의 수험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틀 구안</li> </ul>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을 우대하는 방안 마련</li> <li>- 초등학교 5~6학년에 교과 전담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li> <li>-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수요 예측, 인사 및 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li> <li>-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 시간 수의 격차를 조절해 줄 필요(현재 초등 26, 중등 21, 고등 18시간임.)</li> <li>- 교과목들 간의 통합이 아닌 교사 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모형 개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5일제가 학교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공백의 돌봄 기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돌봄이 불가피한 학생들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등교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li> <li>- 텍스트 기반의 글말(文語) 시대에 부합하는 현행 교육과정은 음성 인식 기반의 구어(口語) 시대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li> <l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으로 고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과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li> <li>- 대통령 직속의 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교육과정이 운영자보다는 법률적 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li>- 세계 통합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li> </ul>

## V. 결론

미래 사회는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진화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미래를 예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이제 생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에 살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다고 한다. 미래에는 예측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으며, 그 차이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성패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는 미래 예측 기술이 있는 젊은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에 대한 예측 기술보다는 대학 입시에 몰입하는 교육을 50여 년 동안 변함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른 기업의 변화 속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 교육은 불과 10의 수준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준비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의 경우 창조적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의 'Edu-Vision 2020'에 제시된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모국어, 수학, 과학, 시민 교육(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과 말레이시아의 '신글로벌 교육 시스템 2015'에 제시된 통합 교육과정-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미래 교육과정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2014년 이후에 적용할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거대 담론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의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작용하게 될 3D형 사이버 콘텐츠(cyber contents)의 방향 설정과 세계 통합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상으로 참여할지 등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30년 후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 적용할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개발과 정착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21세기 사전'에서 2050년이 되면 지구촌은 EU, NAFTA, ASIA의 3개 문화권역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아시아 연합 정부의 수도는 대한민국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2050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연합을 이끌어갈 세대는 다른 아닌 현재 유 초 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구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대한민국 교육의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百年大計의 안목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7. 24).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4. 24).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류청산(2006. 4).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인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향 탐색」. 교육과 시민 사회 교육 정책 포럼 1-28.
- 류청산(2007. 02). 「교육과정의 비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체계 개혁 방안」. 국회의원 이주호 국회 정책연구 보고서 1-43.
- 류청산(2009. 1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쟁점과 발전 방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간행물.
- 박영숙(2008).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 경향미디어.
- 이주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 자크 아탈리 지음 양영란 옮김(2009). 「미래의 물결」. 위즈덤하우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9. 5. 30).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편)(2008). 「백서 1-성공 그리고 나눔(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천세영(2009).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C 2009-1.
-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2009. 7. 15).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9.2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1차) 공청회 자료집」.
- 유엔미래포럼(<http://www.korea2050.net>).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실제 운영 사례



글 | 서현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 I. 들어가며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초 중등교육법(제23조 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교과 교실제에 적합한 최선의 환경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수준별 교과 교실제 운영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 II. 교과 교실제 운영 사례

교과 교실제란, 교사들이 교과 전담 교실을 가지고 교과 특성에 맞게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수업 체제를 의미한다. 학교는 교과 교실제 운영을 통해 각 교과 특성에 알맞은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교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구축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수월성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7년부터 서해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교과 교실제를 활용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본교는 교과 교실제 운영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설계, 건축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었기에 교과 교실제가 부분적인 교과와 일부 학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또, 2년이라는 연구 기간은 교과 교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이었고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 1. 서해고등학교 소개

본교는 산업 단지에 위치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력의 개인차가 심하며 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 빈곤한 가정의 학생이 많으며 가정에서의 관심도가 낮아 고등학교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교과와 특성에 맞는 교수 매체 및 학습 자료, 교실 환경을 구비한 교과 교실제 수준별 이동 수업 체제였다.

이에 본교에서는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교과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내 환경을 재구조화하여 교사는 교과 교실에서 수준별 학습 지도를 위한 최적의 연구 공간을 가지고, 학생들은 교과 교실에 비치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 교실제를 추진, 운영하였다.

## 2. 운영의 범위

㉑ 교과 교실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면서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계를 두어 실시하였다. 본교는 1학년 12학급, 2학년 13학급, 3학년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 2007학년도 1학기 - 1학년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 2단계: 2007학년도 2학기 - 1학년 전 교과
- 3단계: 2008학년도 - 1학년 전 교과, 2학년 영어, 수학 교과

㉒ 교과 교실 운영은 모든 교과를 포함하여 운영하되 위에 제시한 것처럼 3단계로 점진적으로 운영하였다.

㉓ 교과 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1교사 1교실 상주형의 교과 교실 담임제가 필요하나 현행 학급 담임 제도의 제한과 전 교과에 대한 교과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과 교실 책임 운영제로 운영하였다.

㉔ 1 2학년 영어, 수학은 학급 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1학년 국민 공통 교과는 학급 내 수준별 집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 3. 교과 교실 확보 및 교과 교실 환경 조성

### 가. 환경 조성의 목적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실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교과 교실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된 기존의 학교 시설과 구조 속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유휴 교실, 특별실, 교사 연구실, 이동 수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의 공간인 홈베이스, 규모가 있는 사물함, 탈의실 및 휴게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도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교과 교실을 구축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각종 연수와 설명회를 통해 수준별 수업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선진 학교 견학

교과 교실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차 연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해의 11월, 선진 학교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여 선진 학교를 견학하였다. 교과 교실제를 활용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좀 더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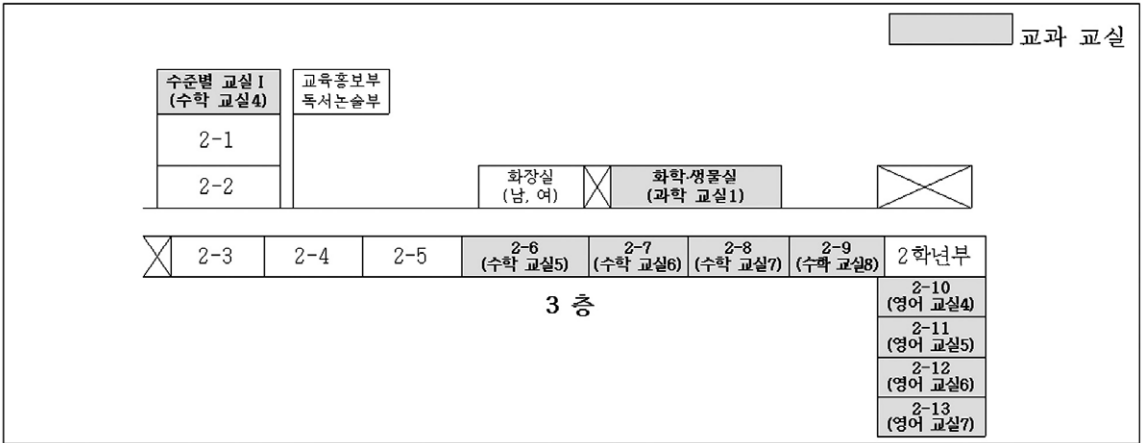
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다. 교내 시설 재배치

- 본교의 건물이 4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층과 특별실은 대부분 1층에 배치하고 학급 교실과 학년 연구실을 학년별로 같은 층에 두어 교과 협의회와 동 학년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 학생의 실 내외 출입 시 신발주머니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들처럼 전학생의 신발장을 각 현관 입구에 마련하여 출입을 편리하게 하도록 배려하였다.
-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구축은 기존의 학급 교실을 교과 교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블록화하여 교과에 맞는 교수 학습 공간으로 재배치하였다.
- 모든 교실에 커튼 대신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2, 3학년 심화반 학생들을 위한 정독실을 3층에 배치하였다. 본교는 정독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가사실을 1층으로 내리고 컴퓨터실과 연결하여 정독실을 만들었다. 정독실은 일과 중에는 컴퓨터 수업실로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120명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학생 이동의 혼잡과 배식 시간 단축을 위해 교사 식당을 가사실로 옮겨 급식 시간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교사 식당을 학생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여 식사 시간의 혼잡을 개선하고 배식 시간을 단축하였다.
- 학생 지원 시설로서, 호텔식 화장실, 동아리 연습실, 독서 논술 쉼터, 교과 교실 활용을 위한 탈의실, 복도 휴게 공간 등을 확보하였다.
- 교원 편의 시설로는 교과 협의회실, 남녀별 교사 휴게실, 교사 헬스실, 연구실 내 쉼터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교실을 커튼 대신 롤스크린으로 설치하여 교사들이 쾌적한 근무 여건에서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학습 효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라. 교과 특성을 고려한 교과 교실 배치

- 학교 환경 구조상 전체 학년의 교과 교실 배치는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단계에 따라 1차 연도에는 1학년 전교과, 2차년도에는 1학년 전교과와 2학년 영어,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교과 교실을 구성하였다.
- 교과 교실제 적용 교과는 교과목, 수업 시수, 담당 학급(담임) 등을 고려하여 1인 1교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유휴 교실 수의 부족으로 1실에 2명을 같이 배정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 교과 교실은 기존의 학급 교실을 교과 교실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되도록 교과별로 블록화하여 이동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교과에 맞는 교수 학습 공간으로 교실을 재배치하였으며, 어학실, 원어민실, 영어 카페, 과학실, 컴퓨터실 등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모두 교과 교실로 지정하여 활용하였다.
- 필요한 교과 교실이 부족할 경우 특별실 및 교사(校舍) 내 복합 이용이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한다. 교과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1.7배 이상 많은 교과 교실을 보유해야 하나 본교는 그러한 여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학급 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한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다용도 교실 확보가 필요했다.



2008학년도 교과 교실 배치도

### 마. 교과 교실 환경 구성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기존 건축물의 공간 확보의 문제로 각 교과 교실의 특성 및 교과 교실 환경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나 모둠 활동 등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교실 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기존에 교무실과 특별실, 자료실 등에 보관되어 사장되었던 자료들을 교과 교실로 이동시켜 기존의 교재 교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또, 교과 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교과 교실이 집중되어 있는 각층에 휴게용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교실 안에 있던 사물함을 교실 밖 복도로 이동 배치하면서 대형 사물함으로 교체하여 학생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각 층에 구비된 학생 쉼터



교과 교실 배치 및 교과 교실 표찰



수학과 교과 교실



이동 수업 출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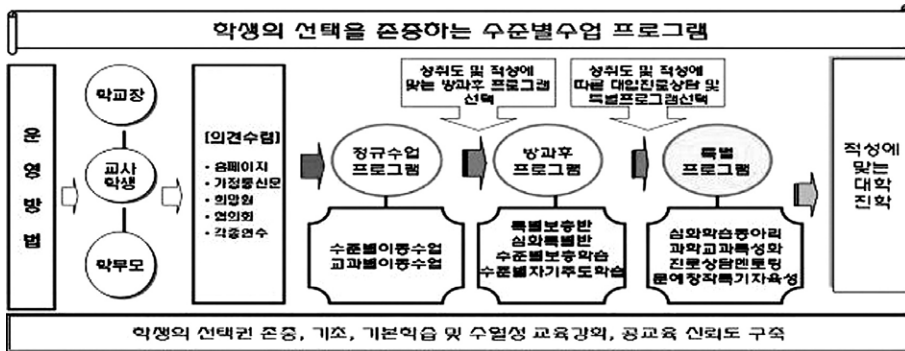


이동 수업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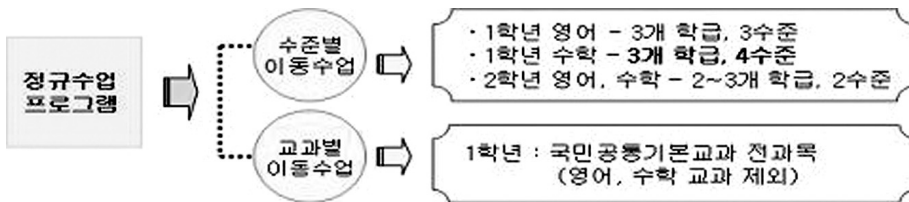


복도에 설치한 대형 사물함

#### 4. 교과 교실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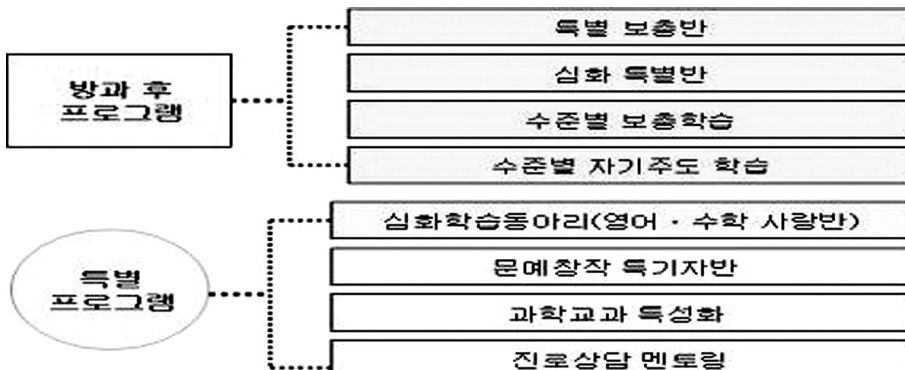
#### 가. 정규 수업 프로그램 운영



- 1, 2학년 영어, 수학 교과는 학급 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 학년 영어 교과의 수준별 이동 수업 집단은 3개 학급 3수준으로 편성 운영하고, 1학년 수학 교과의 수준별 이동 수업의 집단 편성은 3개 학급을 4수준(보충, 진보, 기본, 심화)으로 【학급 수+1】 수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 2학년 영어, 수학 교과는 2~3개 학급 2수준으로 운영하였다.
- 1학년 국민 공통 교과는 학급 내 집단을 편성하여 교과별 이동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 나. 방과 후 및 특별 프로그램 구안

그림과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 4개와 특별 프로그램 4개를 구안하여 운영하였다.





### Ⅲ. 운영의 결과

#### 1. 긍정적인 측면

- ㉠ ‘+1학급’ 수준별 이동 수업의 학급당 인원 수 감축 효과로 인해 수월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보충반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 ㉡ 교과 교실을 활용한 수준별 교수 학습으로 다양한 자료의 공유와 협력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교사들 수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 2. 현행의 문제점 및 대안

- ㉢ 차별화된 수업 교재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으며 교사의 수업 방법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였다.
- ㉣ 수준별 수업 확대 실시를 위한 교과 전용 교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강사비 등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였다.

### Ⅳ. 교과 교실 도입을 위한 제언

내 교실을 내 손으로 꾸며서 나의 수업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자료를 구비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1교사 1교실의 교과 교실제 운영은 아마도 교사들의 꿈일 것이다.

교과 교실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교사 수 등의 인프라 확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 사업으로, 금년부터 600여 개 학교에 교과 교실제의 유형과 학교 규모에 따라 3억~15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교과 교실제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명식 강의식 수업 방법에서 학습자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학급 당 학생 수도 많고 유휴 교실도 부족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교과 교실제가 정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과 교실제의 전면적 실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기 바란다. **연**

#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중일의 노력



글 | 구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실장

## I. 문제 제기

좋은 교과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그 기준을 찾으려면 교육에 대한 당대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후반부터 추진된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화는 교육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기능과 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교과서는 원전(text)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수록된 내용은 당대 학계의 정설이자 진리로서 반드시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른바 성전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는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resource)로서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더 나아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학습자가 필요한 학습 정보를 찾아 나가게 하는 학습 지침서(learning guide)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한국 역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설명 위주로 이루어진 본문 내용이 축소되고 다양한 학습 활동 자료가 수록되었다. 학생이나 교사들은 이러한 현행의 교과서가 종전의 것보다는 가르치거나 배우기 쉽게 재미있는 구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수

록된 활동 자료를 이용하기엔 수업 시수나 교재 연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조사하고 정리했지만 정작 학습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근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그 활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간극이 어디서 비롯되며 개선의 여지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라는 과목은 사회생활에 기본이 되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시민적 자질로서의 능동적 활동이 강조되므로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교과서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교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택한 것은 교육 환경이나 국가 사회적 요구가 유사하므로 한국 교과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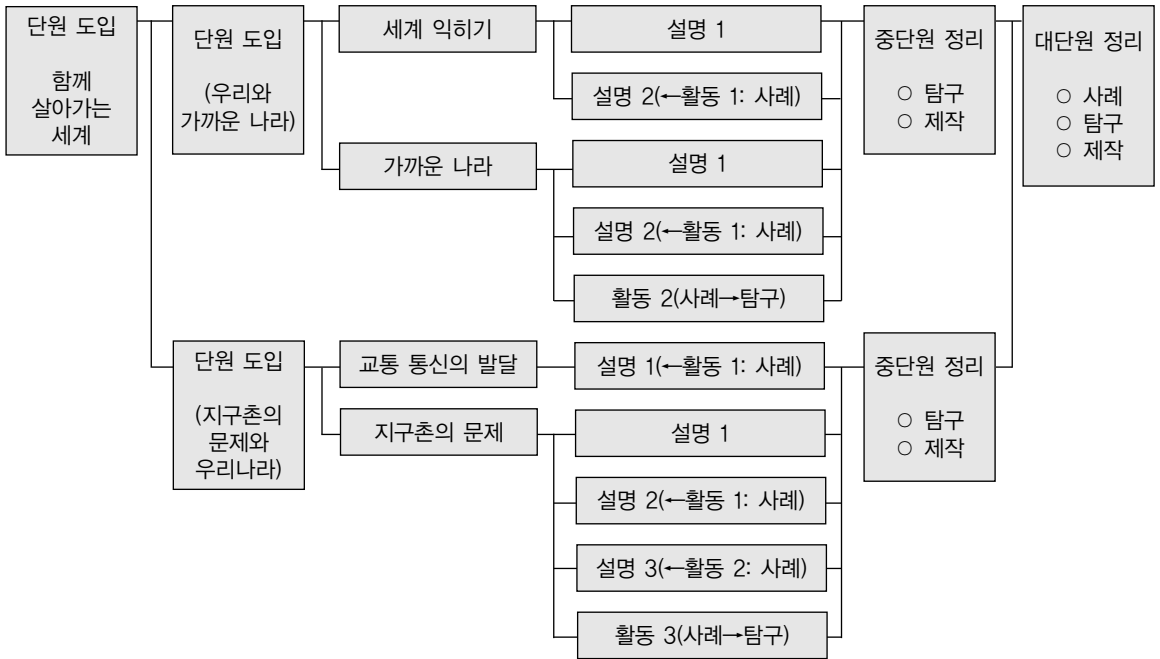
## II. 현행 초등 《사회》의 현황 분석

### 1. 구성 체제의 구조 분석

현행 초등 사회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대단원별 구성 체제에 주목하고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단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단원별 구성 체계



대단원 아래에 2~3개의 중단원을 두고 그 아래 다시 2개 내외의 소단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듯이 학습 주제의 구성은 소단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주제당 다양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단원의 학습 자료를 성격과 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표 2】 활동 자료의 유형별 분포

설명 □, 사실 사례 제시형 ☆, 학습 정리형 ★, 탐구형 ○, 역할극 ◎, 제작 활동 ■

단원	쪽수	자료 내용	내용 설명	학습 의욕 환기 기능	학습 과제 제시 기능	학습 방법 안내 기능	학습 개별화 기능	학습 성과 정착 기능
함 계 살 아 가 는 세 계	72~79	가까운 나라(중 일 미 러)	□					
	80~87	관계별로 본 세계 각국				☆→□		
	88	특정 국가 탐구			☆→○			
	89	중단원 정리 학습					■, ○	
	90~93	인터넷과 지구촌		☆→○				
	94~97	교통 통신 등의 발달과 지구촌				☆→□		
	98~99	지구촌의 문제	□					
	100~101	지구의 재난 사례	□	-----→	(○)			
	102~104	지구촌 문제의 해결 노력				☆→□		
	105	유니세프의 활동	☆	-----→	(○)			
	106	중단원 정리 학습					■, ○	
	107~109	대단원 정리 학습					★, ■, ○	
총 계			3	2	2	3	3	0

【표2】 내용을 외형적인 수치로 보면 설명형과 활동 제시형의 비율은 3:1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내용 구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활동 안내가 아닌 활동 제시형이라는 말에서 보듯 이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이 사실 사례 제시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습 방법 안내에서도 활동 과정보다는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즉, 많은 자료가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나 과정에 대한 안내보다는 활동의 결과물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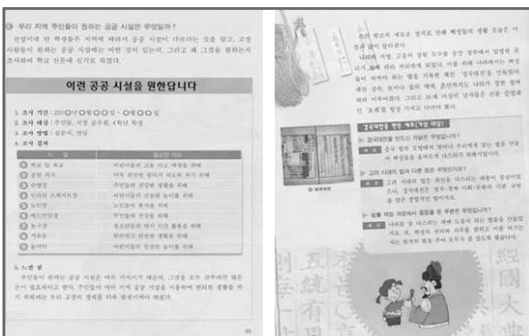
그러나 때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활동 과정과 그 결과가 단순 나열적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또 다른 사실지식으로 둔갑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눈에 띈다. 【사례 2】의 경

## 2. 교과서 수록 내용의 분석

그렇다면 실제 교과서에 구현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은 민주 정치의 기초 개념으로서 정치 참여 문제를 다루는 단원으로, 학급 규칙을 정하는 사례-○○시의 환경 문제 사례-지역 간 갈등 사례-역할놀이의 과정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한 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직접 해결해 보는 활동 학습을 제시함으로써 개념 이해와 능동적 참여 활동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있다.

우 학습 활동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지나쳐 세부적인 내용과 결과로 예상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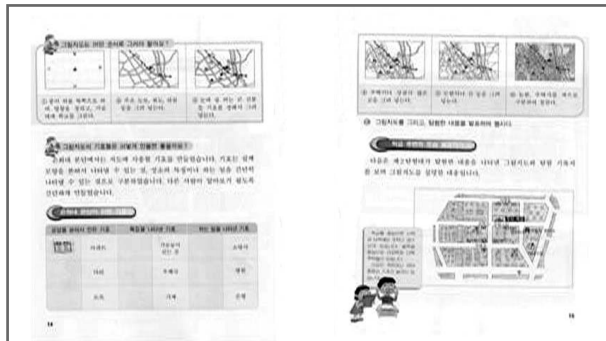


【사례 3】



【사례 3】의 좌측은 단원 정리 학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양한 소개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보인다. 우측의 경우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과잉 의욕으로 인해 당초 제시한 목표와 활동 내용간의 연계가 흐트러지고 만 사례이다.

【사례 4】



### Ⅲ. 일본과 중국의 사례

그렇다면 이웃 국가의 교과서는 어떻게 학생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있을까? 논의에 앞서 여기서 소개하는 양국 사례는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발췌하고 그것에 한하여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적이라는 것을 일러둔다. 이를 통해 현행 교과서가 일본과 중국의 것보다 미흡하다거나 또는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를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도 없으며 상

【사례 4】는 그림지도 제작 과정 활동을 안내하는 부분이다. 그림지도의 기호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앞의 사례와 달리 기호의 예시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그림지도의 최종 결과물의 예시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적 활동에 제한을 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호간의 장단점을 토대로 교과서 개선을 모색하러는 데 그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 1. 일본의 사례

한국의 교과서 서술이 다양한 활동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일본 교과서는 학습 활동과 지식내용이 동일 비중으로 한 단원에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사례 5】를 보면 좌측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고 우측에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치 과정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6】은 동대사의 대불에 관한 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역사적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나란히 기술하고 있다. 설명의 경우에도 말미에 단정적 서술을 유보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발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이 문제를 탐구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사례 7】은 자신의 역사를 써 보는 활동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글씨체를 소개하여 친근감과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거나 활자체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8】은 중단원 전체의 일관된 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반에 일상생활과 정치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례 1】로 제시한 한국의 경우와 달리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례된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학생 캐릭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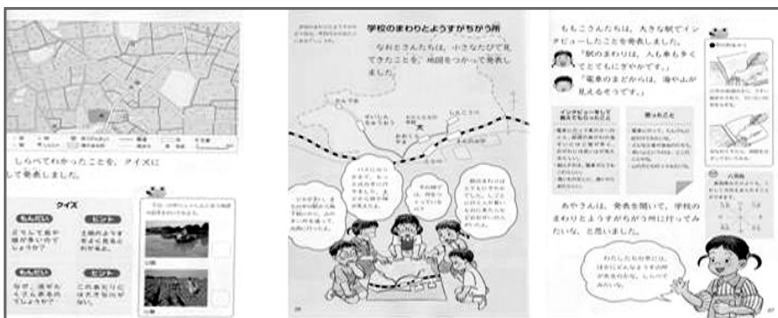
【사례 8】



【사례 9】는 한국의 【사례 4】와 유사한 그림지도 제작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는 교외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야외에서 이루어질 실제 활동을 충분히 감안한 배려라 하겠다. 앞의 【사례 4】와 이 사례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제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습 재료가 될 것 같다.

【사례 9】



## 2. 중국의 사례

중국은 2002년 과정 표준 고시 이후 학습 방법 전환을 강조,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과서의 개선은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초등 사회(현재 과목명은 《품덕과 생활》이다)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기초 지식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사례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 10】



【사례 10】은 인민 대표에 관한 단원으로 기초적인 개념 설명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례를 통해 인민 대표로서의 가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다.

【사례 11】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견해의 차이, 이해의 갈등 등의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 단원이

다. 제시된 사례가 모두 학생들의 일상으로부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랜 사회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유용한 갈등 해결의 사례가 발굴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학생의 생활 중심으로 한 소재에 한정하고자 하는 교육적 배려에 따른 결과인지는 좀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사례 11】



【사례 12】





【사례 12】는 중국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가운데 ‘성장 기록책’이라는 별도 단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활동을 기록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생의 일상과 연계된 교과서 구성이라는 중국적 장점을 최대한 살린 학습 정리와 결과 관리 방식이라고 하겠다.

#### IV. 제언

한국의 교과서는 기본적 사실과 개념 습득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과 활동의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기초 개념에 대한 습득은 다소 부족한 형편이다. 탐구 활동에 있어서 보면 한국은 가장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제시된 활동의 종류나 성격은 덜 다양하지만 제시된 학습 자료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 중국은 활동 자료가 다양하지는 않으나 모든 내용이 학생의 일상적인 문제와 연계하여 제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소재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직접적 실천 활동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교재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예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진다. 상세한 안내와 관련 참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내용 구성이 다소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개발이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사회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이 아닐까 여겨진다.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사회주의 인간과 결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국의 당면한 사회과의 과제가 아닐까 여겨진다.

교과서를 통한 개념 습득, 내용 탐구, 실천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시설과 연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시민교육센터에서 ‘지방 정치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하의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분위기를 돋우는 게임, 정치가에게 할 질문 사항 작성 등 집단 활동,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안 모의 작성, 공무원과 압력 단체와의 모의 회의 등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설적으로 어린이 의회를 두어 시청 직원(배석)과 정책안을 직접 논의하고 타당한 안은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한국에 있어서도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학습 자료집이 발간되고 있다. 【사례 13】 이러한 성과들을 잘 관리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

【사례 13】



# 교육 내용,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향상

글 | 김대석  
고려대학교 강사



## I. 학습에 투입한 시간 대비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한국

PISA 2006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언어, 수학, 과학의 세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 결과를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이 학습한 주당 시간을 분모로 하여 산출한 주당 학습 시간 대비 성취도 결과 분석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취도를 보였다. (홍후조 김대석, 2008) 다시 말해, PISA 2006 과학 영역에서 한국은 참가국 중 11위이었으나 학생들이 학습에 소비한 주당 시간으로 환산한 점수 기준으로 33위를 차지하였다. 비단 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수학과 읽기 영역에서도 한국은 학습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PISA 점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하나, 학습에 소비한 주당 평균 시간으로 환산한 점수기준으로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핀란드는 주당 학습 시간 대비 여전히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결국 PISA 2006에서 한국이 높은 성취도를 보인 원인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결과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달리 해석하면 학습 시간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습 시간을 제외하면 학

생의 성취도 향상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어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curriculum effectiveness)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학습 시간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과연 얼마이며, 시간 외의 다른 변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상대적으로 PISA 결과로 주목을 받는 핀란드의 경우 학습 시간을 포함한 다른 변인들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변인이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PISA 2006 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핀란드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PISA 2006 학생 변인 설문문을 토대로 학교 과학 교육과정을 교육 내용 및 지식,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시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이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LISREL 8.80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 II.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 과학 교육과정이 학생의 과학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 모형의 잠재 변인 간 상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잠재 변인 간 상관계수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성취도		내용 지식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시간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한국	핀란드
성취도	1.00	1.00						
내용 지식	.15	.46	1.00	1.00				
교수 학습 활동	.03	.35	.27	.57	1.00	1.00		
학습 시간	.61	.46	.19	.44	.15	.27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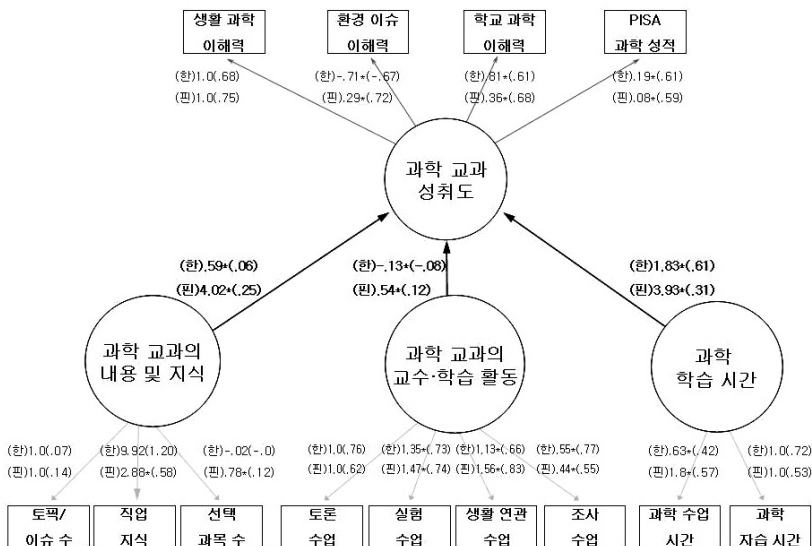
과학 교과와 성취도와 과학 교과와 내용 및 지식의 상관 계수는 핀란드(.46)가 한국(.15)보다 높게 나왔다. 교수 학습 활동과 성취도의 관계도 핀란드(.35)가 한국(.03)보다 밀접하였다. 반면 학습 시간과 성취도의 관계는 핀란드(.46)보다 한국(.61)의 상관 계수가 높았다. 아울러 내용 지식과 교수 학습 활동과의 관계(핀란드: .57 > 한국: .27)나 내용 지식과 학습 시간의 관계(핀란드: .44 > 한국: .19) 및 교수 학습 활동과 학습 시간의 관계(핀란드: .27 > 한국: .15) 모두에서 핀란드가 한국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핀란드의 경우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육 내용에 따른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과 학습 시간이

채택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다. 반면 한국은 교육 내용,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 Ⅲ. 학습 시간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내용 및 지식,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시간이 과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에 위한 구조 모형 및 경로계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과학 교과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세 잠재 변수의 경로계수는 한국과 핀란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요인 적재량도 한국의 ‘직업 지식 및 과학 선택 과목 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 < .01$ ).

\*  $p < .01$  \*\* 한: 한국, 핀: 핀란드 \*\*\* 오차항 생략. \*\*\*\* 첫 번째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b)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화 계수( $\beta$ )임.



【그림 1】 학교 과학 교육과정과 성취도와 의 구조 모형

【표 2】 잠재 변수 간 경로계수(\*  $p < .01$ )

	한국			핀란드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비표준화 계수
내용 지식→성취도	.59*	.18	.06	4.02*	1.14	.25
교수 학습 활동→성취도	-.13*	.03	-.08	.54*	.18	.12
학습 시간→성취도	1.83*	.12	.61	3.93*	.48	.31

잠재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은 과학 교과 내용 및 지식( $\beta=.06$ )과 교수 학습 활동( $\beta=-.08$ )보다 학습 시간이 학업 성취도에 매우 큰 영향( $\beta=.61$ )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핀란드는 과학 교과 내용 및 지식( $\beta=.25$ )과 학습 시간( $\beta=.31$ )이 성취도에 비슷한 영향을 끼치며 교수 학습 활동도 일정한 영향( $\beta=.12$ )을 끼치는 것으로 나왔다. 모형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이 PISA 2006 과학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 원인은 학습 시간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나마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입한 결과 PISA 2006 과학 영역에서 한국이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였으며, 과학 교육 내용 및 지식과 교수 학습 활동은 미미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 IV. 교육 내용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과 학습 시간 운영에 대한 모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은 한국이 PISA 2006 과학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낸 것은 교육 내용, 지식이나 교수 학습 활동보다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0교시 학습, 야간 자율 학습 등 과학 공부에 많은 학습 시간을 들인 결과 그나마 좋은 성취도 결과를 낸 것이며, 과학 교육 내용 및 지식과 교수 학습 활동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반면 핀란드는 학습 시간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내용 및 지식과 비슷하였으며, 교수 학습 활동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핀란드는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학습 시간과 교육내용 및 지식과 교수 학습 활동이 연

계되어 학업 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핀란드처럼 교육 내용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과 학습 시간을 채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핀란드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국가 수준에서 핵심 내용 및 평가 준거만 제시하고 지역 사회나 학교가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1~4학년, 5~6학년, 7~9학년)으로 묶어서 수업 시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기제와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주로 1년 5~6 분기제를 운영하면서 한 학기에 몇 과목을 집중 공부하는 학기 집중 이수제와 하루에 소수의 과목만 공부하는 블록 타임제(block-time)를 실시하고 있다. 수업 시간은 교육 내용과 학생의 능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에 맞게 학교가 자율로 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로만 채워져 있으나 그 성과가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교수 학습 활동이 수동적이고 주지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공부이기 때문이다. (홍후조 김대석, 2008) 따라서, 토론, 실험, 관찰 등의 탐구 활동이 활발한 수업을 위해서는 확일적으로 45분을 과목에 배정하기보다 블록 타임제나 학기 집중 이수제 등을 통하여 교과 및 단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업 시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사된, 오감(五感)을 사용하는 교수 학습 활동은 학습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연]



글 김 흠 (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대하여

이 원고는, '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가 위치한 현지 언어 체계로 기술되었습니다. 우리말 우리글 원칙대로 개고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지어로 기술된 원고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편집진 다수 의견에 따라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 I. 들어가는 말

200만 중국 조선족은 7000만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민족과 같은 피를 나눈 동포이자 한겨레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민으로 13억 중국,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대가정의 일원이다.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 3성과 북경, 상해, 청도 등 대도시와 연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 조선족은 명실공히 해외 700만 한민족 동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근 100년을 웃도는 근대 교육의 긴 려정을 거쳐 오늘날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합류하는 지금까지도 중국 내 여러 민족으로부터 문화 교육 자질과 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소수 민족으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민족 교육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오는 전형”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 이 기저에는 시종일관 민족 교육의 주춧돌과 기둥 역할을 드팀없이 해온 조선족 기초 교육의 우수한 전통과 끈질긴 분투의 발자취가 또렷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 II. 중국 조선족 교육 발전에 대한 역사적 회고

중국 조선족 교육은 19세기 말 조선 유민들의 중국 이주 초기부터 그 모습을 보였던 전통적인 서당 교육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인 성격의 교육은 1906년 이상설 선생이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면서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중국 조선족 근대 교육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그 발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06년의 “서전서숙”의 설립으로부터 1931년 “9.18”사변 전까지의 사이로, 이 시기는 민족 독립에 뜻을 둔 각계 민족주의 인사들과 일제의 식민 통치를 피해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여 온 조선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사립학교를 창설하여 민족 교육의 맥을 이어온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일제의 동북 강점으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료까지의 사이로, 이 시기는 주로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 체제하의 동화 교육, 우민화 교육으로 특징지어지는 노예화 교육으로 점철된 민족 교육의 수난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광복 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민족 정책과 교육 방침에 따라 조선족의 기초 교육, 직업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과 특수 교육 등 제반 분야가 활발한 발전을 가져온 시기이다. (물론 광복 후에도 엄청난 좌절과 곡절을 겪은 역사적 교훈도 있음.)

특히, 지난 세기 80년대 이래 중국 조선족 교육은 개혁 개방 속에서 교육 체제 개혁(학교 운영 체제, 관리체제, 학생 모집 제도와 졸업생 배치 제도, 노동 인사 제도 등)을 통한 집권과 분권의 결합, 교육 운영의 활성화, 교육 구조 개혁을 통한 다양화된 교육의 추구, 교육 내용, 방법 개혁을 통한 교육과정과 현대적인 교육 철학 사상의 구축 등 면에서 일련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선보였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나라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된 기초 교육과정 개혁 대환경에 편승해 시대성과 민족성이 결합된 새로운 과정 표준과 교과서 개발에 주력하면서 민족 기초 교육의 탈태환골의 변신과 보다 높은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 Ⅲ.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육과정(교수 요강) 개발

#### 1.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육과정(교수 요강) 개발의 역사적 연혁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육과정(교수 요강) 개발의 역사는 195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그 후 복잡다단한 역사적 발전 행정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지난 세기까지의 그 역사 연혁 과정을 개략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 “소학교 조선 어문 교수 요강(초안)”(1956), “초급 중학교 문학 교수 요강(초안)”(1956년)
- “소학교 조선 어문 편집 요강(초안)”(1963년)
- “전일제 중학교 조선 어문 편집 요강(초안)”(1963년)
- “조선족 중소 학교 조선 어문 교학 대강”(토론고)(1972년)
- “조선족 중소 학교 조선 어문 편집 요강”(1976년)
- “소학교 조선 어문 교재 편집 요강(시용 초안)”(1978년)

- “중학교 조선 어문 교재 편집 요강”(1978년)
- “소학교 조선 어문 교재 편집 요강”(1986년)
- “초급 중학교 조선 어문 교재 편집 요강”(1986년)
- 10년제 의무 교육 전일제 조선족 소학교 “조선 어문 교수 요강”(1990년)
- 10년제 의무 교육 전일제 조선족 중학교 “조선 어문 교수 요강”(1990년)
- 조선족 고급 중학교 “조선 어문 교수 요강”(1997년)

#### 2. 새 천년 의무 교육 조선어문 과정 개혁

중국에서는 세기 교체를 맞은 2001년부터 기세 드높은 제8차 기초 교육과정 개혁을 가동하였다. 새 천년 세계적인 무한 경쟁에 대비해 전국민의 종합 자질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데 취지를 두고 시작된 이번 의무 교육과정 개혁은 9년 일관제로 과정 분류와 수업 시수를 재정립하였고 종합 과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과 함께 과정 구성에서 균형성과 종합성, 선택성을 체현하였다. 그리고 자질 교육의 높은 요구에 걸맞게 과정 체계를 갖추고 학생 중심의 과정 목표를 내세웠으며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본 기능을 정선하였고 자주, 협동, 탐구적인 학습 방식을 권장하면서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지방, 학교의 3급 관리 모식을 채택하여 민주화를 체현시켰다.

국가 수준의 어문 과정 표준이 출범한 후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이 문헌을 참답게 학습하고 그 정신 실질을 리해한 기초에서 우리 민족 언어 문자의 특성 및 기초 교육 조선 어문 교육 환경과 밀접히 결부하는 것을 토대로 외국의 교육 개혁 경험 특히는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의 유용한 경험을 참고하면서 2004년 7월에 의무 교육 조선족 학교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을 개발하였다.

서언, 과정 목표, 학년별 교육 내용, 과정 방법, 과정 평가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은 그 이전 시기의 《조선 어문 교수 요강》에 비하여 많은 새로운 교육 이념을 담고 있다.



### 3. 새 천년 고중 조선 어문 과정 개혁

2003년 3월 중국 교육부의 명의로 된 《보통 고중 과정 방안(실험고)》과 15개 학과목의 《과정 표준》이 나오자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상술한 문헌과 외국의 고중 교육과정을 비교, 연구하고 조선족 고중의 교육 현장 실태를 조사 파악하면서 《고급 중학교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의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2005년 7월에 초안(토론고)을 완성하고 2007년 5월에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번 과정 개혁은 과정 이념에서부터 과정 구성과 과정 내용, 과정의 구체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유례가 드문 대규모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다. 특히 “열독과 감상”, “표달과 교류”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어문 1”부터 “조선 어문 4”까지 도합 4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필수 과정과 “시가와 수필 감상”, “소설 감상”, “희곡 감상”, “신문과 전기”, “습작” 등 5개의 계열로 구성된 선택 과정의 도입 그리고 학점제의 실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고중 과정 개혁을 “1977년의 대학 입시 회복”과 어깨를 겨룰만한 큰 사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Ⅳ.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교과서 편찬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의 교과서 편찬 문제를 언급하자면 연변 교육 출판사를 빼놓을 수 없다. 광복 후 동북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던 조선족 중소학교들에 통일적인 조선 문교재를 공급함으로써 민족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하에 조선족 유지 인사들에 의해 1947년 3월 중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전문 교육 출판사인 연변교육출판사는 창립된 그날부터 민족 교육의 중요한 진지가 되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연변교육출판사는 몇 세대에 걸치는 선각자들과 지성인, 출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10류차<sup>1)</sup>의 교과서를 편집하였는데 조선 어문,

한어, 음악, 미술, 체육, 사회학과(정치, 력사, 지리), 자연학과(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일본어, 영어, 유치원, 무용 등 중소 학교의 모든 학과목을 망라하였다.

편목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의 가장 핵심 학과로 지목받는 조선 어문 교과서의 편찬 정황에 대해서만 력사 발전의 맥락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방 후 중국에서는 어문 교수 요강과 어문 교재를 크게 8차례 바꾸었다. 이에 상응하게 조선 민족 어문 교재인 조선 어문 교과서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중소 학교를 망라하여 그 발전 변화 상황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건국 초기 조선 어문 교과서(1949~1956)

문법은 소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문에 배합하였고 중학교에서는 박상준의 “조선 어문법”을 재판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53년부터 “한글”을 “조선어”로 개칭했고, 한자 혼용을 취소했으며, 내리쓰기를 가로쓰기로 고친 “조선어” 교과서가 나왔다.

#### ● 1950년대 중기의 조선 어문 교과서(1956. 9~1958)

1956년부터 조선 어문 교과서를 “문학”과 “문법”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그중 소학교 교재는 “조선어 독본”과 “조선어문법”으로 나뉘었는데 초급, 중급 학년은 문학, 력사, 자연, 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고급 학년은 아동 문학 작품을 위주로 하였다. 이 시기 소학교의 “문법” 교과서는 한 책으로 묶어 따로 편집, 출판하였다. 초중은 “문학 독본”과 “문법”으로 분과하였고 고중은 “문학 선문집”과 “문학”으로 분과하였다. “문법”은 김수경의 “조선어 문법”을 교과서로 삼았다.

#### ● ‘대약진’ 시기의 조선 어문 교과서(1958. 5.~1960. 12.)

1958년 10월에 소집된 전국 소수 민족 교재 출판회의 후로는 극심한 민족 정풍과 “좌”적 사조의 영향으로 1959년 연변 교육 출판사에서 교수 요강(편집요강)도 없는 정황에서 총망히 새로운 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학과목의 이름도 “조선족 어문”이



라고 개칭하였다.

- **국민 경제 조절 시기의 조선 어문 교과서(1961~1966)**

1962년 5월에 중앙 교육부에서 중소 학교 어문 교수 요강을 반포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같은 해 9월에 ‘중소 학교 조선어, 한어 교재 편집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재 개편 사업 방안’을 제정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당시로서는 비교적 괜찮은 교재를 편찬하였다.

- **‘문화 대혁명’ 시기의 조선 어문 교과서(1966. 5. ~1976. 9.)**

중국 현대 사상 가장 엄중한 동란으로 평가되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자 소학교는 “모주석 어록”을, 초중은 “모택동 저작 선독”을, 고중은 “모택동 저작선독”을 교재로 쓰다가 학교의 수업이 완전 중지되자 이런 책들의 출판도 결국 멈추고 말았다.

- **새로운 력사 시기의 조선 어문 교과서(1976. 10~1987)**

- (ㄱ) 1976년~1983년 교과서

중앙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연변교육출판사에서 1976년부터 조선 어문 교과서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 교과서는 “10년 동란” 후에 처음으로 동북 3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과서로 되었다. 1983년에는 동북 3성 조선 어문 사업 협의 소조 판공실에서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조선 어문법》을 편찬함으로써 동북 3성 범위에서 중소 학교용 문법 교과서를 통일시킬 수 있었다.

- (ㄴ) 1984년~1987년 교과서

1984년부터 1987년 상반기까지 편찬을 완수한 통용 교과서는 건국 이래 조선 어문 교재 편집의 유용한 경험을 살리고 한족 어문 교재와 조선, 일본 등 외국 교재를 비교, 연구한 토대 위에서 자체의 교재 체계를 확립하였다.

- **지난 세기 90년대의 조선 어문 교과서(1991~2000)**

1986년 중국에서 의무 교육법이 반포되자 연변교

육출판사에서는 1990년부터 중앙의 기본 정신과 조선 민족의 기초 교육 현황에 토대하여 실험 교과서의 편찬에 들어갔다. 그리고 고중 조선 어문 교과서는 1997년에 나온 교수 요강에 근거하여 열독과 습작, 말하기 훈련 부분을 갈라서 배치하고 강독 과문과 자습 과문을 나누어서 수록하였다.

- **새 천년 조선 어문 교과서**

21세기를 맞으며 중국에서는 대규모적인 제8차 기초 교육과정 개혁을 가동하였다. 이에 따라 연변 교육출판사에서도 새롭게 의무 교육 조선족 학교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을 개발하고 2004년 가을부터 1학년, 4학년, 7학년 상학기용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공급하였다. 이 신편 교과서는 도구성과 인문성의 통일을 기하여 실천 활동을 중시하고 목표, 주제별 종합 단원을 구성하며 참신한 수업 목표 체계를 세우고 능력 훈련의 종합성을 체현하면서 수준별 교육을 일정하게 시도하는 동시에 인문성을 강화한 등 특점을 가진다.

이 밖에도 2007년 가을부터 새롭게 모습을 선보인 고중 조선 어문 교과서는 처음으로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 모듈과 계열로 총체적인 체계의 틀을 잡았고 2009년부터는 전부 3색 채색 판면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이번 고중 조선 어문 과정은 ‘열독과 감상’, ‘표달과 교류’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어문 1’부터 ‘조선어문 4’까지 도합 4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필수 과정과 ‘시가와 수필 감상’, ‘소설 감상’, ‘희곡 감상’, ‘신문과 전기’, ‘습작’ 등 5개의 계열로 구성된 선택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필수 과정 교과서에 ‘명작 열독 추천’ 전문란을 설계하고 국내외 명작들을 줄거리를 요약해서 소개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 **V.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 향후 발전 전망**

건국 이래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중국 조선족 기초 교육은 급변하는 새로운 형세에서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물결을 따라 50만을


웃도는 대량의 조선족들이 관내로 진출하면서 조선족 인구 분포와 민족 교육은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으며 시대적 변화에 처한 민족 교육은 당면 조선족 사회 각계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형세에서 민족 교육의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면 전통적인 교육 사상, 교육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대적인 민족 교육 리념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민족의 우수한 력사, 문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족 학생들이 기초 교육 단계에서 조선어와 한어를 겸통하도록 하고 교원 대오 건설과 민족 교육 과학 연구를 참답게 틀어쥐으로써 교육 교수의 총체적인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연변대학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켜 연변대학이 진정 명실에 부합되는 민족 기초 교육 연구 기지, 양성기지, 훈련 기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일정 규모를 이룬 관내 새로운 조선족 집거구에 다양한 형식의 조선족 교육 기구, 특히 학교를 창설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 Ⅶ. 나오는 말

황막한 간도 땅에 민족 교육의 뿌리를 내려서부터 중국 조선족 근대 교육은 한 세기 남짓한 동안 파란만장의 험난한 로정을 헤쳐 오면서 아주 낮은 초등 교육 단계로부터 점차 중등 교육, 고등 교육에 이르는 비교적 완벽한 민족 교육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단순한 민족 교육 발전의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과 번영 발전에 기본적인 밑거름을 마련하였고 중국 내 다원 문화 발전에도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비록 그 사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글로벌 21세기를 맞아 전국 소수 민족 가운데서 특색이 있고 우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현대화적인 높은 수준의 일류 조선족 기초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다. 정부의 정확한 민족 정책이 있고 교육을 열애하는 우수한 전통이

있고 민족 기초 교육의 100년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국내외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 목표는 틀림없이 실현되리라 본다. 

- 1) 10류차: 한국에서는 ‘윤차’로 표시하며 ‘돌아가는 차례’ 혹은 ‘순번’이란 뜻으로 도합 열번에 거쳐 새로운 교재를 편찬했다는 의미.
- 2) 10년 동란: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의 범사회적인 사상, 정치 투쟁으로 사회 경제 발전에 막심한 재난을 가져왔음.

## 🌐 참고 문헌

- 《중국 조선 민족 교육 사료집》 제3권 (연변교육출판사 2003년판)
- 《조선 문교 재편찬사》 (연변교육출판사 2007년판)
- 《중국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연변대학출판사 1995년판)
- 의무 교육 조선족 학교 《조선 어문 과정 표준》 (연변교육출판사 2004년판)
- 조선족 고급 중학교 《조선 어문 과정 표준》 (연변교육출판사 2007년판)



## 음악 교과서의 역할

글 기선민 (태림출판사 편집기획실장)

현재 각 음악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음악 교재들은 음악 교재이기 이전에 미술책, 아니 동화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삽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 꽤 오래되었다. 단지 악보를 보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음악 공부라는 생각도 이제는 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일까를 고민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출판사에서 먼저 효과적인 교수법을 공부하고 개발하여 이런 교수법들을 어떻게 지면에 펼쳐야 학습하는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는지 그 교수 방법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바로 교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교육에서는 삽화나 사진을 통해 음악과 연관된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노래의 가사를 통해 그 나라의 사회적 가치와 생각 등을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공교육인 제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음악 교과서는 무척이나 심심한 교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음악에 관련된 사진 자료들은 본문의 몇 쪽과 관련된 사진이라는 부속 설명과 함께 겨우 면지 등에서나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교과서가 바로 우리의 음악 교과서였다.

다행히 작년에 검정에서 통과된 음악 교과서는 커다란 진화를 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본문이 컬러로 바뀐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이 컬러로 바뀌었기에 본문의 음악 또는 내용과 함께 연관된 다양한

삽화와 사진 자료 등을 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학습 효과가 배 이상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눈과 귀가 동시에 소통하며 학습하게 된 것이 귀로만 듣던 공부보다 학생들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무지개 노래를 부르며 무지개 색을 눈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효과일까? 이제야 교과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란 생각까지 들게 한다.

본문이 컬러로 바뀌어 달라진 또 다른 장점을 꼽으려면 삽화나 사진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예전의 왼쪽은 악곡, 오른쪽은 설명이라는 포맷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음악은 다양한 교과목과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서보다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열려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미술과 연결하면 서양의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근대 등 시대상을 학습할 수 있고, 조성, 계이름 등을 학습할 때는 수학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춤곡 등을 배울 때는 무용과, 또 여러 국가의 작곡가 등을 배우면서는 사회 과목과도, 심지어 외국 노래를 배울 때에는 외국어와도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교과서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과서를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음악 교과서는 매 단원마다 내용과 악곡이 어떤 것도 같은 포맷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변칙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다른 교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 교과서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교실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학습 내용을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지면에 분포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안에 담겨진 방법이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눈으로 보았을 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또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해야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음악이라는 교과목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많은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멈추어 있는 종이에 어떻게 나열해야할지 편집자로서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번 음악 교과서를 만들면서 예전에 겪었던 경험을 여러 번 떠올리곤 했다. 아주 오래 전에 성인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기초적인 박자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다.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서 그 박자를 피아노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찾은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기 이전에 박자라는 개념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껏 어려움 없이 해 왔던 일상생활의 한 수단인 박수를 여러 번 박자에 맞추어 반복 학습을 하게 한 뒤, 피아노를 치게 했더니 그 효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피아노 치는 것으로 박자를 가르치려고 애썼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음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이해했던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음악 교과서의 편집 방향을 잡았다.

음악을 책상 앞에서만 배우게 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느끼고, 활동하게 하자.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학생 스스로

활동을 통하여 몸으로 느끼게 하자. 이론조차도 편하게 주어 외우게만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자.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생각한 음악 교과서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교과서에 담겨질 때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광경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지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의도했던 이런 생각들을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참고서가 아닌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도구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서 바뀌고 싶어 할까? 아니면 예전의 손쉬운 방법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더 많으실까? 아니면 내가 의도했던 이런 것들을 눈치 채 주실까? 등 여러 질문들을 매일매일 쏟아내곤 했다.

교과서뿐 아니라 일반 음악 교재를 만들면서도 항상 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현실과 이상의 중간점을 찾는 일, 템포를 조절하는 일이었다. 이번 음악 교과서 만드는 작업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좀 더 새롭고, 좀 더 앞서가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과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하며 싸웠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굽힐 수 없었던 나만의 음악 교과서는 앞에서 나 스스로 경험을 통해 얻었던 학생들에게 스스로 활동해 보게 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만든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지 아닌지는 10년이 넘는 후에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정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음악 교과서를 만드는 일로 우리나라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역할뿐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교과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글 최진선 (미진사 편집장)

미진사는 40여 년 미술책만 만든 미술 전문 출판사이다. 나 역시 미술 실기와 이론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미술 서만 근 6년 동안 만들었다.

주로 마대 학생이나 미술가들을 위한 단행본을 만들던 우리가 갑자기 중학교 미술 검정 교과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미진사 같은 미술 전문 출판사가 미술 교과서를 만들면 교과서 전문 출판사보다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10년 만에 교과서 검정이 실시되니 이번에 미술 과목을 해 보라는 김모 사장님의 권유로 난생 처음 검정 교과서와 인연을 맺었다. 2007년 12월이었다. 다음 해 12월에 검정 심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딱 1년이 남은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 경험이 있는 출판사들은 일찍이 팀을 만들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저자들도 이미 그곳에 참여하고 있었다. 늦은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짓이었는데, 겁도 없이, 집필 경험도 없는 저자들과 역시 교과서를 잘 모르는 편집자 팀을 꾸렸다. 설상가상, 이번 중학교 검정 미술 교과서는 1, 2, 3학년 통합권이란다. 예전에는 1년에 70여 페이지 한 권을 만들었는데 이번 미술과는 200여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다.

### ☐ 교과서 제작의 바이블 '교육과정 해설서'

다행히 우리 팀에는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현장 선생님이 있었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근거로 교과서를 만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솔직히 단행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남짓한 기간에 틀을 짜고, 내용과 그에 맞는 작가 작품 및 학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 작업부터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 아니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모든 미술 교과서들이 비슷비슷한 것일까? 문제는 해설서의 문구 자체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이 교과서가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고심했고 결국 문구 하나하나를 경전처럼 책에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령 이번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시각 문화 환경' 조항의 경우 사례로 '간판'이 들어 있었다. 이 경우 모든 미술 교과서에는 간판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다. 시각 문화 환경이 무엇인가라는 최소한의 정의가 해설서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미술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

가. 영역별 집필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미술 이론, 미술사 등을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동·서양 작품이 너무 편중되어도 안 되고,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번 들어가도 안 된다. 폭력, 외설, 너무 상업적인 내용도 물론 안 된다. 지난 중학교 미술 교과서 같은 경우 ‘미술과 사회의 관계’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스와스티카(swastika,卐, 만자) 문양이 초기 종교적인 상징에서 정치적 코드로 변화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로서 나치의 히틀러가 팔에 스와스티카 문양의 완장을 달고 있는 작품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미술사 개설서에 등장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나치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실었다. 그런데 이 도판은 ‘이념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삭제 지시를 받았다. 운이 좋아서 삭제 지시를 받았지 국가, 인종, 이념 편향과 같은 문제는 탈락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 중 하나이다. 편집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는 것은 이렇게 잠깐 지나칠 수 있는 실수 때문에 1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작가 작품과 학생 작품의 배분은 적절한가? 등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끊임없이 점검을 한다.

## ☐ 1년간 교과서 제작 일정은?

먼저 우리는 해설서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미술 교사와 교수로 이루어진 저자 일곱 명의 수업 사례들을 함께 보며 집필진의 수업 성향 등을 파악했다. 한 달 뒤 목차 잡기에 들어갔다. 1~3학년 통권이 되다보니 목차의 맥락뿐만 아니라 난이도로 학년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발달 단계상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생에 가깝고 2~3학년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몸과 머리가 급변하는 시기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 기준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난이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통상 미술 교과서에는 학생 작품이 50%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했다. 개인적으로 공공 교육에서 미술 과목은 보고 즐기며 문화를 이해하는 감상 영역이 주가 되어야 하며, 자기표현으로서 실기 수업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의 견해는 달랐다. 학생들이 작가 작품보다 동료 학생 작품을 통해 개념을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점검 심사에서 학생 작품을 한 점도 신지 않은 미술 교과서가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학생 작품을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작품만 확보되면 교과서 반은 썼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교과서 제작 일정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월 학기 시작 전에 대략의 수업 내용은 정해야 한다. 그래야 1학기 동안 수업을 해서 학생 작품을 얻고, 여름 방학 동안 1차 집필을 완료할 수 있다. 2학기 동안 수정 작업하고 겨울 방학 때 마무리 해서 검정 심사에 제출한다.

## ☐ 미술 교과서 편집자의 역할은?

교과서 편집자에게 중요한 자질은 조정(arrangement) 능력이다. 저자들 간의 의견 충돌을 비롯해 저자 원고가 교육과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전체 일정 관리 등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편집자가 조율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에 대한 감이 없다. 저자의 글을 줄이는 과정에서 편집자와 저자의 갈등이 시작된다.





기존의 이론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재정의 되는 현실에서 편집자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까? 또, 저자의 신선한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은 아닌지, 교과서에 실을 만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 방법은 저자들과 밤을 새며 토론을 하며 적정 수위를 찾아 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쓸 법한 개인적인 견해를 교과서에 실으려 한다.

흔히 주관적인 내용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술에 객관적인 정답이 어디 있는가? 또, 미술은 기존의 고정 관념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재정의 되는 현실에서 편집자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까? 또, 저자의 신선한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은 아닌지, 교과서에 실을 만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 방법은 저자들과 밤을 새며 토론을 하며 적정 수위를 찾아 가는 것이다. 하나의 용어나 한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감론을박할 때도 있다. 그래도 결론이 안날 경우 우리는 외부 자문을 많이 구했다. 관련 전공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과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많은 선생님들이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까지 주셨다.

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중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삭제했다. 내용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게 작품도 교체해야 한다. 때로는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서 혹은 적절한 학생 작품이 없을 때, 수업에 적용해 보니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등 챕터가 나가 통째로 빠질 때도 있다. 이런 과정이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학교생활과 교과서 작

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보약을 먹기 시작한다.

편집자들 역시 교과서 검정 심사 제출이 끝나고 나면 며칠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교과서는 피를 말리고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며 '왜 이렇게 밖에 만들지 못하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과서 작업을 한 번 해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도 대단하다." 라고 한다.

#### ☞ 미술 교과서의 생명, 이미지

미술과 같은 경우 글과 더불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화질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책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기도 하다. 대체로 미술책을 출간해 본 저자라면 출판이 가능한 해상도의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이미지 파일 정보를 보면 크기가 나오는데 가령 20KB 정도면 웹용 이미지이다. 1MB 이상 되면 비교적 크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인쇄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과서는 국배판(A4 용지 크기 정도)이 가장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이미지가 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자들은 웹용 이미지와 같이 화면에서는 크게 볼 수 있지만 출판 시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밖에



쓸 수 없는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미지도 글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자가 책임을 지고 인쇄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니 저자들이 내용보다 고해상도 이미지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미진사의 경우 상당수의 이미지를 편집자들이 수급하였는데 미술 전문 출판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이다. 또, 이번 검정에서는 교과서에 저작권 표시를 의무조항으로 추가하였다.

단행본 출판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예술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진 저작권까지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은 좀 복잡하다. 미술 작품은 한 작품 당 두 개의 저작권이 있다. 작품을 만든 작가의 예술 저작권과,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가의 저작권이 있다. 미진사의 경우 이미 이러한 관행에 익숙했기 때문에 검정 제출 막바지에 저작권 표시를 하라는 통보가 왔어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떤 출판사는 제출본 인쇄를 중단하고 다시 작업할 정도로 애를 먹었다.


향후 저작권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진 저작권이 그러하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을 직접 찍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저자는 미술책을 내기 힘들 것 같다. 덧붙여 단행본과 검·인정 교과서의 저작권법은 다르다. 검·인정 교과서는 비상업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저작권진흥센터'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출판사는 저작권자를 표시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권료에 구매 받지 않고 '공표된' 이미지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료가 한 컷에 10만원을 호가하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 ☐ 미술 교과서의 미래는?

현재 우리는 초등과 고등 미술 교과서를 준비 중이다. 검정 제출일이 11월로 한 달 앞당겨져 마음이 급하다. 더

욱 심란한 것은 '미래형 교육과정'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정을 편익상 7.5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전면 개정을 하는 8차가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7.5차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 중인데, 이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전에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 의하면 음악과 미술이 예술과로 통합된다. 또, 고등학교 미술과 1학년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필수 교과로서 미술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교과가 된다면 여기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교과서를 당분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예전처럼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한 학생들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명확한 것은 과거와 같은 미술 수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순수 창작물로서 미술의 가치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 대신 미술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고정 관념에 대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림 문자로 소통을 하였듯이 말이다. 내가 늘 인용하는 문구가 있다. 모호이너지(1895~1946)는 '21세기 문맹은 이미지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며 텔레비전을 켜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보고 만들고 영향을 주고받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진사의 미술 교과서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등등이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결과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부담도 크고 힘든 것이 교과서이다. 

## 교과서에 얹힌 추억들

글 조원표 (부천 창영초등학교 교사)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교과서는 나는 뭘 수 없는 동반자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 이십 리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동안, 등에 둘러맨 책보 안에는 어김없이 달그락 거리는 도시락과 김치국물에 얼룩진 교과서가 들어 있었다. 검정 고무신에 무거운 책보를 메고 학교에 도착하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느 날인가는 친구가 “야, 우리 오늘 펜파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펜파’라면 당시 우리들이 쓰던 은어였는데, 학교를 안 가고 놀다가 하교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 가는 것이었다. 집에서 싸왔던 누룽지는 아침 나절 다 먹어 치우고 점심때쯤 되어서는 허기를 달래려고 동네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 큰 바위 틈 속에서 생 라면을 부수어 먹었다. 정말 그 재미가 쏠쏠했었다. 잠시 뒤 “야, 우리 앞담배 한 번 피워 보자. 동네 형들이 숨겨 놓은 장소를 알고 있어.”

잘 피우지도 못했던 담배를 호기심에 ‘콜록콜록’ 소리를 내며 한참 피워 대고 있는데 “네 이놈들,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니?” 갑자기 호통 치는 소리에 바위틈 사이로 내다보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아저씨였다. 그분에게 붙들려 학교 빼먹고 담배 피운 죄가 추가되어 밤늦게까지

책보를 매고 동네 우물을 돌아야 했다. 그때는 왜 그리도 무거운 교과서가 원망스럽던지.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책이 무거웠냐?”며 애꿎은 교과서 탓만 했던 기억이 있다. 교과서는 당시 우리들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어미가 아이를 늘 안고 다니듯이 교과서가 들어 있는 책보를 신줏단지 모시듯이 등에 매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농담 한마디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하셨다. 따라서 누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했느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 당시 우리 반 친구 중에 선생님 말씀을 교과서에 꼼꼼하게 기록한 친구가 있었는데, 중간고사 날짜가 발표되어 막상 국어 교과서를 펼쳐보니 내가 적은 내용들이 너무 빈약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국어 교과서를 빌려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 며칠간 그 친구와 이야기도 않고 몸살을 앓은 적도 있었다. 지금이야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기억되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야속하기만 했었다. 그 사건 후 수업 시간이

면 교과서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 교과서에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교과서를 포장지로 싸고 비닐 커버를 입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삽화도 많이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매우 세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교과서에 공을 들이는 노력과 함께 공부를 잘하는 선배님들의 교과서를 물려받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적이 우수한 선배의 책을 빌려서 밑줄을 쳤거나 학습에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남겼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 공부에 시달려서 대학에 진학만 하면 교과서와의 인연이 끝날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니 교과서와 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말았다.

국제 협력에 관한 교재와 물 사랑 관련 교재를 만드는 일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해 보고,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 업무를 맡아보니 교과서를 만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더구나 종이 한 장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만이라도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아이들이 교과서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그런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잃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교실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아이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새 교과서가 언제 나올까?’ 잔뜩 기대하며 새 교과서를 받아든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뜬 기분으로 교과서를 예쁜 포장지로 싸고 애지중지했던 옛날 학생들의 모습과는 다른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교과서의 제작과 생산 과정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반 아이들만큼이라도 그 정신을 심어 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만든 교과서가 소홀이 취급되면 안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교과서를 나누어 주는 날에는 학창 시절 내가 했던

방식대로 교과서 앞뒤로 이름을 쓰게 하고, 예쁜 비닐 포장지를 준비해 와서 한 시간 동안 포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뽀뽀를 한 번씩 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교과서까지 등장하면서 이제는 교과서도 그 내용과 형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과서 외에 다양한 보조 교과서가 등장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서에서도 환경이나 해양 및 국제협력 등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더 알기 쉽게 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첨단 정보 매체가 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교과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번, 수업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역할놀이 모형을 적용한 도덕 수업이었는데, 수업자인 내가 도덕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아이들에게 읽혔다고 어느 선생님께서는 도덕 수업이 무슨 읽기 수업이냐며 도덕 수업은 교과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셨다.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며, 배가 바다를 향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이 교과서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없는 수업은 감초가 들어가지 않은 보약과도 같으며, 이정표를 잃어버린 배와 다름없는 것이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과서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교사가 된 지금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글 김정일 (창북중학교 교장)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라고 한다. OECD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사회 및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정립에 여념이 없다. 미래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에 바른 투자를 하지 못한 국가나 개인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까지 거치면서 제5차까지의 국가 주도형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와 제6차에서는 교육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 지침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는 이 두 가지에 의거하여 학교 실정과 교육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 학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11, 12학년 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정되면서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학

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외국에서 2004년부터 3년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학교에 부임하니 이곳 역시 사교육과 과열된 학업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학교 외에 다른 외국 국제 학교와 교육과정도 비교 분석하고 1994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근무했을 당시 연구한 “OECD 국가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이해자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중등 과정에서 한 학년에 약 14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영어

회화,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한문)을 배우고 있었다.

주 5일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14개 교과목의 수는 너무 많은 편이었다. 여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 준비되고 추진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많은 교과목을 5일 동안 배우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할 상황에서 뭔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04년 말부터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 7학년(중1)에서 12학년(고3)까지 학기당 8개 교과목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일부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는가 하는 위기감에 학교가 술렁거렸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후에 더욱 만족해하였다. 운영 방법은 교과 블록제를 운영하였다. (현 집중 이수제에 해당) 그리고 학기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확실히 매년 모든 교과목을 배워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면 주당 1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미술 시간, 점토를 가지고 제작 수업을 하는데 40분 수업으로 작품을 완성시키기가 어렵다. 점토는 마르기 때문에 1주일 뒤에 다시 수업하기는 어렵고 결국 집에서 어머니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1주일에 14개 교과목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수업에 적응해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기에 모든 사람이 당연한 듯 아무도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7학년 1학기에 미술을 3단위 수업으로 배우고, 2학기과 다음 8학년 1학기에는 건너뛰고, 8학년 2학기에 3시간을 배우면 지금까지 교사들이 맡아온 수업 시수에 변화가 없었다.

다른 과목은 다른 학기에 배우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8개 교과 수업으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음악과 미술, 체육 교과와 평가를 서술식으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이는 인성을 키우고 즐거워야 될 예체능 시간에 시험을 본다 고 일부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학생씩 나와서 평가를 받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소란스럽게 또는 무질서하게 기다린다. 이는 주와 부가 뒤바뀐 느낌이

다. 숫을 넣으면 90점이고 넣지 못하면 85점 등, 미세한 점수 차이로 학생들이 희비가 갈리는 그러한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음악과 미술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한 학생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이 학생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해서 많은 상을 받은 학생이지만 장래 목표는 음악을 전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의대를 갈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음악을 선택하면 실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평가에 피아노 반주를 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최상의 성적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의 실력은 이 정도면 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자신이 없다. 이는 12년 대학 특례를 기다리는 학생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음악과 미술 과목의 평가가 서술형으로 바뀌어 학생의 장점을 기재하니 행복해 하며 미술을 선택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시험 기간 중에 항상 14개 교과목을 평가받던 것을 6개 교과목 정도로 시험을 보니 학생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교과 학습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집중 이수가 효과가 있는 교과목이 있는 반면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만 효과가 증대되는 교과목이 있다. 이를 확실히 같은 잣대로 처리된다면 원하는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초 중 고 각 40분, 45분, 50분 수업 진행도 이제는 학교 자율성을 살려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어떤 과목은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어떤 과목은 학기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열어 두어야만 할 것이다.

항상 교육의 방법은 최선을 찾아 해마다 다시 태어난다.

내가 교육 수혜자라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 과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틈바구니에서 나의 귀한 자녀가 허덕거린다면 '과연 이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50년대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하여 일본식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 버리기 힘든 국가 주도형 교육과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이전의 형태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열린 교육과정으로 창의력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편제는 시기에 따라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50년 정도의 단시간에 이렇게 훌륭히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된 것에 대해 경이롭게 보고 있으며 “Look East”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주도형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 쉽게 버리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한 국가의 교육의 목표와 성과는 큰 주기로 천천히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작정 “Look West”는 곤란하고 국가 주도형 교육과정과 개인의 열린 교육과정은 항상 공존하여야만 한다고 본다.

일반 대중의 개인이 교육의 관점을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바른 교육과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추구해야 함에도 대학 입시에 버금가는 사교육의 현실에서 허덕이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할 중학생은 농구를 하자는 학생을 친구 어머니가 문제 학생으로 간주하고 어울리기를 회피하는 삭막한 현실에서 교육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전인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각 학교의 현실은 학업 성취도 신장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환경이고, 숨쉬기 어려운 각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초등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의 바른 인성과 건강한 정신과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고, 고등학교는 상급 학년에서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복한 학생들을 양성하여, 어릴 때부터 공부의 진을 다 소진하고 정작 힘을 내야 할 시점에 기운을 받

휘하기 힘든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우리 사회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선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생을 추구하며 변화를 수용하며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 기반 사회 지속 및 국제 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인간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 환경도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12월에 고시 예정으로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세부 내용이 아닌 교과 조직의 근간이 되는 운영 방법 중심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과별 20%의 자율적 증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 교과군, 학년군 편제 도입으로,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한 학기당 이수 교과 수 과다 문제 해소,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폭넓은 인성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여, 조기에 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제공하고 자 함이다. 또,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묶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 신장, 여가 선용, 창의성 개발 등을 도모하여 즐겁고 활기찬 학교로 만들고자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통합 교과와 고교 선택 과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

개정 초 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한다고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OECD 국가들은 국가 수준에서 교과서의 준비와 교육 현장에 대한 제공이 우리나라처럼 철저히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교과서의 선택과 활용의 많은 부분이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맡기고 추후 평가를 통해 성과를 판단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교과서의 자율성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면 교과별로 20% 증감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서에 많은 부분이 종속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교사 개인의 역량을 어디까지 접목해야 할지 혼돈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교과별로 늘어날 수 있는 20%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과서 개선을 위한 정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가 있다. 교과서 정책의 근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학습 수준에 따라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형 교과서’를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검정 교과서 가격 제도 및 이익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쟁 체제 확대하고, 교과서 개발 심사 선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교과서 대여제 실시, 재생 용지 교과서 개발 등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의 환류를 도모하는 것이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에 추구했던 좋은 교과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시대에서는 가

장 적절한 것이며 최선의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좋은 교과서의 모습도 미래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는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즉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은 첫째 학업 성취 기준, 둘째 교수자의 교수 활동 기준, 셋째 교실 환경 기준을 잘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과서를 시험과 연관된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과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 및 교사의 교수 활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과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짜여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보다 더 학생 흥미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실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은, 학생이 스스로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경험을 확대하여 학습자와 전문적 지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올 E-사회 및 U-사회에서는 교과서 매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 정책도 ‘언제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인가?’ 하는 출발 시간만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우리의 교과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과서 정책이 디지털 교과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교과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9)

최광언

-(주)성지문화사 CEO-



① 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출판업에 투신하게 되었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 출판 분야 중에서 특히 지도와 교과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하였는데, 20대부터 우연한 기회에 지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도는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도를 닦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큰 매력을 느껴서 40여 년간 지도 제작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오직 지도 한 가지만을 전문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사회 교과 분야인 지리부도, 역사 부도 같은 지도 관련 교과서에만 전문성을 살려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제까지 출판을 해 오시면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거나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책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재미있는 일화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성지문화사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도

로 관광 지도 20여종, 지적 임야 약도 8종, 특별시 광역시 도별 지도, 시별 도로 안내 지도, 환경 정리용 지도, 영문 지도, 코팅 및 코팅 표구 지도를 포함하여 약 200여 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1992년에 초판이 나온 '전국 도로 지도'와 1993년에 초판이 나온 '1:10만 도로 지도'는 90년대 마이카 붐을 타고서 회사의 성장에 토대를 마련한 책입니다. '전국 도로 지도'는 국배판으로, 전국을 1:250,000의 축척으로 구성하고, 광역시와 전국의 모든 시급 지역의 시가지 지도를 수록해서, 이 한 권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그 뒤 발간된, '1:10만 도로 지도'는 전국을 1:100,000의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해서 고속 도로,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는 물론 비포장도로까지 수록하였으며, 시골의 마을 명칭까지 상세히 수록한 백과사전식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고가 장비인 GPS(위성항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 2인 1조로 지방을 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도 내용을 계속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결과 명품 지도가 되

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없어서 현지 조사를 하려면 항상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의 경로를 정하고 지도상으로 먼저 도로의 상태와 위치들을 파악하고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도로 주변의 지리 정보를 책자에 일일이 기입하면서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숲 속의 비포장도로에서 헤매거나, 새벽의 안개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 등,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자료들은 지금도 자료실에 잘 보관되어 있어 성지문화사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라 생각합니다.

**③ 교과서 또는 참고서 외에 기타 기획물이나 단행본 가운데서 성공작도 있고 실패작도 있을 것이고,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성지문화사는 지도 업종을 출판하다 보니 지도 관련 책자도 많이 출판하였지만, 베스트셀러보다는 실용적인 책자들을 많이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한 지도로는 ‘대동여지도의 연구’, ‘한국 언어 지도집’, ‘구한말 지형도(1:50,000)’, ‘세계 지명 유래 사전’, ‘한국의 지명 변천’, ‘도도로키의 삼남대로 답사기’ 등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인 도도로키 씨가 우리 옛길을 실제로 걸으면서 쓴 답사기 책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 책은 신국판, 반양장, 336쪽으로 제작된 책으로 서울 송례문에서 시작하여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로 이어지는 옛길인 삼남대로를 직접 도보로 조사하고, 답사한 내용을 정리한 책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파발마가 지나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걷고, 묵었던 그 옛길의 흔적을 쫓아, 때로는 논밭 속으로 사라지

고, 풀숲으로 변하고, 고속 도로에 파묻혀 버린 옛길을 걸으며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복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④ 국내의 출판사들 가운데 귀사가 교과서 출판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영 전략과 출판 방침은 무엇이었고, 출판사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성지문화사는 1979년 창립 이래, 지도만 출판해온 지도 전문 출판 기업입니다. 성지문화사가 자체 브랜드로 교과서 출판을 시작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 때부터 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 때 중학교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 지리부도, 역사 부도, 공통 사회, 세계사, 세계 지리 등을 검정 신청하여 합격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때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 역사 부도, 지리부도 등의 과목을 검정 신청하여 합격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중학교 사회과 부도를 검정 신청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같이 교과서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의 지리부도, 역사 부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항상 지도만 제작 출판한 기업으로써 유능한 기술 인력과 지리 역사를 전공한 편집진, 그리고, 유능한 저자 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고의 교과서를 출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교과서 출판이 일반 출판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 출판의 어려운 점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책입니다. 교과서 속에서 여러 가치를 배우고, 가치를 정립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며,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중요성과 역할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봅니다.

교과서 출판에는 많은 희생정신이 요구됩니다. 다른 일반 기업처럼 이윤 추구에만 몰두했다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뒤로했을 때가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㉔ 흔히 우리 출판계의 문제점으로 규모의 영세성, 유통 구조의 낙후성, 독서 인구의 소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원인과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독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홍보 정책은 물론, 업계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책 읽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좋은 책을 많이 만들고, 책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㉕ 현행 교과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과서 출판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점을 보면, 첫째, 너무 낮은 가격으로 교과서의 내적, 외적 질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중의 참고서나 여러 가지 학습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가격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sup>1)</sup>

둘째, 초 중 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정 또는 검정으로 편찬되고 있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교과서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

다. 또, 개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급변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의 기본 이념이나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교과서를 점차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교과서 채택 시 짧은 일정과 공정한 선택 기준의 미비로 양질의 교과서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 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고, 공정성 있는 심사 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여 현장 교사들이 양질의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한 번 선정된 교과서가 사용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변경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출판인은 그 어떤 직업의 종사자보다도 많은 희생정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장인 정신이 요구되며, 내가 만든 교과서가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서 제작과 개발에 임해야 합니다.

**㉖ 출판업은 문화 진흥이라는 윤리성과 이익 추구는 상업성 양면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합니다. 출판업이 다른 사업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 귀사를 이끌어 온 경영 이념은 무엇입니까?**

출판업이 다른 사업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공헌이나 문화 진흥을 더 우선시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것과는 달리 출판업은 좋은 책을 만들어 이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일조한다는 목표를 더 우선시 합니다.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에 더 큰 목적을 갖는다

면, 이 사회의 문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약 40여년을 지도와 교과서 출판 및 개발에 전념해 온 (주)성지문화사는 고품질의 명품 지도와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는 신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9) 교과서 연구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홍보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관련된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진국의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제도를 많이 연구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 10) 출판사의 역사와 경영 이념은 무엇입니까?

(주)성지문화사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40년간 지도를 전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청각 교재를 중점 개발 보급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도로 지도, 관광 가이드북, 지적 편집도, 등산 지도 등 다양한 지도와 중 고교용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GPS를 이용한 지리 조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변화된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아날로그 지도와 디지털 지도에 업데이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과 본사 연구 개발팀은 GIS 솔루션 개발, 웹 지리 정보 서비스, 모바일 지리 정보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11)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지문화사는 소신 있는 출판사,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태반인 회사, 연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벤처 기업이라는 수식어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 제작 및 지적 측량과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진도 지리학과 역사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계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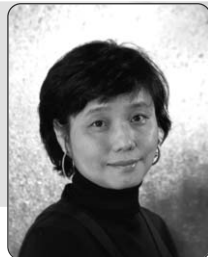
---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2009.8.18 공포)을 통하여 새로 검정 실시 공고하는 도서부터는 가격을 발행사가 결정하여 검정 출원하는 검정 도서 '가격 자율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담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 교과서 그림 들여다보기

글 박희숙 (작가)



미술 교과서 실린 그림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이다. 탁 트인 실내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를 베일로 덮고, 복잡한 자수로 장식된 어두운 색의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여인을 그린 초상화 〈모나리자〉는 미술 교과서뿐만 아니라 광고, 조각, 소설 등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방탄유리로 보존되고 있는 〈모나리자〉를 직접 감상하면 그 작은 크기에 먼저 놀란다. 왜냐하면 명성에 비해 크기가 77×53cm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는 백색 포플러 나무에 유화로 그려져 있는 패널화로, 액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당시 액자에 넣을 수 있는 최초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서명이나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지금은 모나리자의 모델이 피렌체 공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인 조 콘다의 아내 리자의 초상화라는 배경이 가장 유력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회화의 기준을 정립한 〈모나리자〉를 제작하면서 초상화의 공식적인 우울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하여, 악사와 광대를 확실히 초청하여 모델의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하여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 16세기 여인들은 눈썹을 그리지 않는 것이 유행이었다. 또,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짙은 색 옷은 당시 결혼한 여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드레스 상단에 수놓아져 있는 고리와 매듭 모양에 매료되어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모나리자〉의 배경에 있는 돌산과 작은 오솔길, 말라붙은 강바닥이 오른쪽에 보이지만 계절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본 풍경들을 상상해서 그렸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위가 있는 황량한 풍경을 좋아했는데, 풍경은 그 이전에 종교화에서 시도했었던 것으로 인간의 잠재성을 의미한다.

또, 초상화에 배경으로 풍경을 사용한 것은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플랑드르 거장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풍경을 배경으로 한 초상화를 제작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물을 화면 앞쪽으로 더 가깝게 배치했다.



〈모나리자〉  
목판에 유채, 77 × 53 cm,  
1503 ~ 1506년 경, 파리 루  
브르 박물관 소장

〈모나리자〉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던 것은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의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과 달리 명암법을 이용하여 풍경과 인물이 구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일체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윤곽선이나 경계선 없이 어두운 밑바탕에서 시작하여 반투명 유약을 칠해 나가면서 입체감이 느껴지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다(스푸마토 기법은 색과 색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상에 음영을 그린 뒤에 윤곽선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덧칠하거나 손가락으로 문질러 윤곽선을 남기지 않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모델의 긴장을 풀기 위하여 광대와 악사를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고통의 긴 과정 속에 탄생하였다. 화가에게 작품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수년 동안에 걸쳐 제작하는 동안 끊임없이 수정하고 덧칠하였지만 완성하지는 못했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의뢰인에게 전해 주지 못했고, 1516년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이주할 당시에도 〈모나리자〉를 비롯하여 몇몇의 작품을 가지고 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였지만, 화가로서의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1506년, 밀라노의 프랑스 총독 샤를 당부아즈의 초청으로 밀라노로 이주하였지만 거기서도 냉대를 받았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국인 이탈리아를 등지고, 프랑스로 망명한다.

프랑수아 1세가 〈모나리자〉를 소장하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 작품이 16세기 퐁텐블로 궁에 걸려 있었다. 1625년, 버킹엄 공작이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대신하여 루이 13세에게 〈모나리자〉를 영국에 넘겨 달라고 했지만 실패했다. 한때 〈모나리자〉는 툴리르 궁의 나폴레옹 개인 침실에 걸려 있다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18세기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탈리아인 유리 제조 공 페루자에게 도난 당한 사건 때문이었다. 1910년 말 미술품에 대한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루브르 박물관의 책임자는 중요 작품에 보호 유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페루자는 작품을 보호하는 보호 유리 상자를 만드는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가 분노했다. 결국 1913년 페루자는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 놓은 모나리자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팔려고 내놓으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모나리자〉는 동시대는 물론 현대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다다이즘(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하는 예술 사조)의 마르셀 뒤샹은 1919년 모나리자에 수염을 그려 넣고 'LHOOQ(‘그녀는 끝내 주는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프랑스어)라는 글을 써 넣음으로서 추문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이후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팝 아트의 앤디 워홀은 1963년 모나리자를 대량 복제함으로써 걸작의 위

상을 찬미하면서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르네상스 최초의 거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조각가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소에 조각가를 무시해 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이 뛰어 오르는 기마상을 의뢰받았지만, 형상을 점토로 제작하는 어려움으로 말이 걷는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 거대한 점토상은 10여 년 만에 완성하여 밀라노 광장에서 전시되었고,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침공으로 점토상에 사용하려고 했던 청동은 무기로 제조되는 불운을 겪었다. 나중에 점토상은 방치되어 파손되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잃었다.

조각과 전통적인 프레스코화 기법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여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 두고, 새로운 작품에 정열을 쏟았다. 그는 생전에 20여 점밖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를 사랑했다면, 그의 라이벌이자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회화를 부흥시킨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사랑하였다. 미켈란젤로는 고대 예술을 부흥시킨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에 있지만, 한편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쇠퇴기를 함께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에게 명성을 안겨 준 첫 번째 작품은 〈피에타〉이다. 이 작품은 피라미드 구조로, 성모 마리아의 얼굴과 주름진 옷자락이 나 축 늘어진 예수 시신의 등을 그리스 조각에서 영향을 받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켈란젤로는 산 디오니지 추기경의 주문을 받아 〈피에타〉를 제작하는 데, 〈피에타〉는 마리아가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잠시 무릎 위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장면을 말한다. 성서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은 가장 슬픈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는 어려운 주제지만 작품을 제작해 보고 싶었던 차에 추기경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의뢰를 받는다. 그는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 대형 조각상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2m가 넘는 대리석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먼저, 점토 모형으로 제작하고 대리석으로 옮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과 비애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표정을 실어 넣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예수가 죽을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오십이 넘어 젊은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무릎 위에 앉히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미켈란젤로는 정통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수를 마리아의 무릎에 눕히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것은 고통에 젖은 성모 마리아가 시신을 내리깔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교회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오른손은 예수의 상체를 받쳐 들게 하고, 왼손은 바깥으로 뻗게 제작하였다. 마리아의 품과 무릎은 교회의 제단을, 예수는 제단에 받쳐지는 제



〈피에타〉  
1498~1499, 대리석, 높이 171cm,  
로마 베드로 성당



물을 상징한다. 벌린 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비극을 의미한다.

〈피에타〉 조각상을 보고, 어린 나이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듣고,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작품이 그가 사인한 유일한 작품이다.

미켈란젤로는 2년 동안 피에타에 매달린 끝에 완성을 하지만 산 디오니지 추기경이 갑자기 죽어서 약속받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다. 재료비는 물론 완성된 〈피에타〉조차 가지고 올 경비조차 없었던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성당 구석에 세워 놓은 채 파렌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피에타〉는 동시대에는 물론 후대의 화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는데, 카바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을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전성기를 대표하는 화가는 라파엘로이다. 라파엘로를 르네상스 거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 작품은 〈아테네 학당〉이다. 이 작품은 고대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이 이뤄 낸 성과를 찬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예술과 지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철학자로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등은 당시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의 문화와 지성을 담당하였다.

〈아테네 학당〉은 웅장한 건물 안에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자신의 이념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토론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프레스코 벽화이다. 아테네 학당은 모든 시대의 이

념과 역사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곳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지시로 바티칸 성당에 있는 교황이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문서의 방’을 장식하기 위하여 라파엘로가 그린 네 개의 벽화 중의 하나이다.

이 방은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 궁 2층의 자신의 거처 위에 마련한 아파트 공간이다. 라파엘로는 단순한 공간이었던 곳을 역사적인 인물과 광경들로 채워 넣었다.

개방형 건물 오른쪽에 창을 들고 미네르바의 조각상과 왼쪽에는 아폴로 조각상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다. 수금을 들고 있는 아폴로는 이성의 신

으로 철학과 신학을 상징한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죽어 가는 노예〉를 참고하여 아폴로상을 그렸다. 미네르바는 평화를 상징하는 지혜의 신으로 문학과 법학을 상징한다.

화면 중심에서 토론을 벌리고 있는 인물이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붉은색 옷을 입은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티마이오스〉를 들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푸른색 옷을 입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윤리학〉을 들고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아테네 학당〉  
1509~1511년, 프레스코 벽화, 로마 바티칸 성당 소장

두 철학자가 가리키는 것은 이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상의 이데아를 중시하는 플라톤은 하늘을, 실존주의 철학을 중요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화면 왼쪽에 소크라테스는 한 무리의 아테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아래에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수학적 이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고, 그의 어깨 너머로 피타고라스 책을 보고 있는 인물이 스페인의 엠파도클레스이다. 피타고라스 뒤에 포도 넝쿨 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대리석 받침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정면에 쭈그리고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인물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이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계단 정면에 술잔을 들고 대자로 누워 있는 인물이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이다.


화면 오른쪽 아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는 허리를 숙인 채 컴퍼스로 석판에 그려진 도형에 각을 측정하며 주변에 모여 있는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유클리드 뒷쪽에 있는 청중들 사이로 황금색 옷을 입고 왼손에 지구의의를 들고 있는 인물이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앞에서 지구의의를 들고 흰색의 옷을 입은 인물이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예언자이자 배화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이다. 이 두 사람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라파엘로이다.

라파엘로는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동시대에 화가들을 모델로 하였다.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유클리드는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브라만테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하였다. 라파엘로가 예술가의 얼굴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다.

이 작품에서 라파엘로는 대화, 독서, 집필, 명상, 가리치고 있는 인물의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위대한 철학자들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라파엘로는 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건물의 정교한 양식을 로마의 칼리칼라의 목욕탕을 비롯한 고대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하였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제작할 당시에는 프레스코화는 물론 대규모의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는 무명의 화가였지만, 다양한 자세와 표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실제의 인물들의 표정을 보고 연구한 결과이다. 그는 실물을 보고 그린 수백 점의 드로잉 습작을 거쳐 프레스코로 그릴 벽에 옮겼다.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제1조 중 “초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로,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 제3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심의”를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7조 제2항 중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검정방법)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 제1항 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10조 제2항 본문 중 “하나의”를 “동일 학년의 하나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서 뒤에”를 “경우로서 나중”으로,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 2(이의 신청)
  - ① 제9조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및 제10조의 2제 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 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3조 제1항 중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을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회”를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6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0조의 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중”을 “제9조 제3항 중”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 제2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한다.
- 제23조 제2항 중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 제23조의 2 제 1항 중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를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로 한다.
- 제2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28조 중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제30조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4월”을 “4개월”로 한다.
- 제31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를 “교과용도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 제6장의 제목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 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 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 중등 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 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을 “제3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로 한다.
- 제40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 가격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발행 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 교과서 종이도 녹색 바람~ 내년부터 재생 용지로 제작!

- 교과서를 위한 재생 용지 규격 마련하고, 유해성 여부 검증 마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내년부터 공급되는 중 고등학교의 새 교과서 및 지도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 용지로 제작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 용지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되었던 인체 유해성 여부 및 품질 저하도 정책 연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재생 용지의 유해성 여부는 교과부 정책 연구 검증과 별도로 학사모(상임 대표 최미숙)가 자체 의뢰한 검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부분이 국정도서인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과서는 학생들이 침을 많이 묻혀 보는 독서 습관과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재생 용지 사용 결과를 평가하여,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기한 이후(2013년도)에 재생 용지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용 연한이 남은 제7차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및 아트를 사용하는 교과서(미술, 사회과 부도 등)는 각각 현행 용지로 계속해서 제작 공급된다. 교과서 본문에 적용하는 재생 용지 규격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정한 『GR 품질 규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될 수 있는 폐지 배합 비율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도록 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시험 생산 및 인쇄 테스트를 통하여 현행 교과서 용지 규격과 유사하게 세부 기준을 추가로 정함으로써 현행 용지와 동등한 종이 품질 및 인쇄 품질이 되도록 하였다. 지난 7월,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1,044명에게 재생 용지 시산품과 현행 용지로 각각 제작한 견본 도서를 보여 주고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설문 조사 결과, 재생 용지와 현행 용지를 구별하기 어렵다(77%), 재생 용지의 품질이 우수하다(80%), 교과서를 재생 용지로 만드는 데 찬성한다(76%) 등으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수요자들은 재생 용지 교과서의 품질 및 적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재인 교과서를 재생 용지로 제작 공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 본문에 재생 용지 사용에 따른 자원 절약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교과서 표지에 품질 인증(GR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도서 본문 재생 용지 규격(안)

구 분	단위	현행 용지 규격	재생 용지 규격	비 고
재생 펄프 배합 비율	%		30 ↑	신설, GR 품질 규격
평 량	g/m <sup>2</sup>	75±3.0%	75±3.0%	
두 계	μm	73±3	72±3	1μm 하향 조정
PPS(거칠음도)	μm	2.5±0.5	2.5±0.5	
광택도	%	23±3	23±3	
이물질(0.08mm <sup>2</sup> 이상)	개/m <sup>2</sup>		8 ↓	신설, GR 품질 규격
인장 강도(MD)	kN/m	3.5 ↑	3.2 ↑	0.3 하향 조정
인열 강도(CD)	mN	200 ↑	200 ↑	
백색도	%	78±2	78±2	
불투명도	%	90.0 ↑	90.0 ↑	
L(밝기)		93±0.7	93±0.7	
a(블루-레드)		0±0.4	0±0.4	
b(그린-옐로우)		3.5±0.4	3.5±0.4	
형광 지수		7.0 ↓ (권장 사항)	5.0 ↓ (강제 규제)	원지는 가능, 도공층 배제



초등부 금상

# 교과서는 물음표

글 김가영 (군포옹호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부호를 선택할까? 우리 엄마는 느낌표라고 하신다. 교과서는 보고 배우고 느낄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라고 하신다.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겠지? 그래서 교과서와 느낌표는 잘 어울린다. 우리 아빠께서는 교과서가 마침표다. 교과서 공부는 기본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선택하셨다고 하신다. 우리 아빠는 항상 교과서적 지식을 뛰어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집은 가끔씩 엄마의 느낌표와 아빠의 마침표가 충돌을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내 책가방은 아주 무겁다. 다른 친구들은 교과서를 사물함에 두고 다니지만 나한테는 어림없는 얘기다. 교과서가 느낌표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는 교과서를 절대로 사물함에 넣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다. 수학 익힘 책에 과학 실험 관찰, 사회과 탐구가 세트로 들은 날이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책 몇 권을 학교에 슬그머니 두고 왔다가 엄마의 설교를 지겹게 들어야 했다.

난 일학년 때부터 교과서로 공부했다. 지금까지 학원이나 학습지를 해 본 적도 없다. 우리 엄마는 모든 공부는 교과서 위주로 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난 문제집도 전 과목 문제가 나오는 것 달랑 한 권 밖에 없다. 대신 수학이나 익힘 책을 복사해서 먼저 풀어 본다. 그리고 엄마는 국어나 사회는 반복해서 교과서를 읽게만 시키신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아도 어느 쪽에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도 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묻는 문제를 푸는 게 내 시험공부의 전부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을 보면 나는 반에서 2등은 한다. 엄마는 그것이 교과서의 힘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욕심이 많다. 그래서 1등을 하려면 문제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께서 내 책가방을 들어보시더니,

“애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걸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니까 키가 안 크지.”

라고 하시면서 사물함에 두고 다녀도 괜찮은 책들은 빼놓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낌표와 마침표는 충돌을 했다. 하지만 마침표는 느낌표를 이기지 못했다. 느낌표의 넘치는 교과서 사랑에 마침표는

쉽표가 되어 버렸다. 아빠께서 쉽표로 꼬리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엄마의 설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책가방은 여전히 무겁다. 우리 집에서만도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나한테 교과서는 뭘까? 나에겐 교과서는 물음표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 투성이이다. 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다. 교과서는 내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날 자꾸 궁금하게 만든다. 국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결말이 궁금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책을 사다가 읽게 만든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름다운 동시에 나에게 느낌을 물어오는 국어 책이 정말 좋다. 수학 책은 내게 끈기를 길러 준다. 수학 책 문제를 내 힘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었더니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도 척척 풀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 과학도 사회도 음악도 미술도 체육도 실과 책도 교과서는 모두 내게 호기심 천국이다. 그래서 나한테 교과서는 물음표다. 답을 가르쳐 주는 대신 끊임없이 궁금하게 하니까 말이다. 물음표를 던져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이다. 한참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영아! 무지개를 쓴 사람이 누구야? 무지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엄마한테도 들리게 크게 읽어 봐!”

5학년이 되어서도 난 집에서 매일 큰 소리를 내서 국어 책을 읽는다. 나는 목소리를 성우처럼 흉내내며 책을 읽기 시작한다.

“무지개 김동인 비가 겠다.” 연

중등부 금상

## 내 꿈의 멘토 교과서

글 고성민 (서울사대부속중학교 1학년)


오늘도 나는 꿈을 꾸다. 세계를 누비며 외교로써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를 하는 외교관의 모습을 말이다. 친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으로 내달리지만 나는 책상 앞에서 꿈의 길잡이를 펼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과서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과서를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나 빠뜨리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조금은 귀찮은 준비물쯤으로 여긴다. 그래서 교과서를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꿈을 이루도록 밀어주고 당겨 주는 멘토가 가득한 보고이다. 교과서 속의 수많은 역사적 위인과 문학 작품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외교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시인 윤동주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이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강건했던 시기를 묻는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고구려, 그 중 광개토대왕이 재위했던 기간을 언급할 것이다. 이 시기는 무력적으로도 강건했지만, 외교적 능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빛났음을 주목해야 한다. 모든 전쟁은 무력적으로만 치루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지략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손실은 최소로 줄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력과 외교력을 조화시켜 신라와 연나라 등 주변국을 견제하고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외교력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교과서 속의 광개토대왕을 통해 대립의 상황을 용맹스럽고 지혜롭게 파헤쳐 나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다음의 멘토는 시인 윤동주이다. 나는 시인의 작품 ‘별 헤는 밤’을 친척 형의 교과서를 통해 접했었다. 시를 읽은 후의 첫 느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광개토대왕이 드넓은 영토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게 했다면 시인의 작품은 우리의 세계가 우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알려 주는 듯 했다. 아버지는 종종 대한민국만 보는 사람과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 인식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세계를 보는 자와 우주를 보는 자 역시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동주의 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조바심까지 만들었다. 최근 한류 스타 1인이 수많은 외교관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우리의 아름다운 문학이 최고의 외교관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나의 마지막 멘토는 에디슨이다. 에디슨하면 ‘발명왕’이라는 별칭이 저절로 따라 붙는다. 에디슨이 발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리 조금은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속 에디슨은 그가 명성에 만족하는 이가 아님을 알려 주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한 그의 말에 실패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난과 좌절이 있기에 꿈은 더욱 값지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보람이 클 것이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관이 된 후에도 발령받은 국가의 문화와 법규에 정통해야 하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이 길의 곳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수시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은 당연하다. 그때마다 광개토대왕과 시인 윤동주 그리고 에디슨을 떠올리며 이번의 실패가 다음에 올 성공의 거름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교과서 속의 멘토들도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하고 깊은 지식을 알려 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교과서를 펼친다. 그러면 그 안에 가득한 꿈의 멘토들이 말을 걸어온다. 자신이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는 물론 몇 만 년의 역사를 알려 주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나도 미래의 어느 날에 꿈을 찾아 교과서를 펼치는 후손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고 싶다는 희망과 다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나의 보물을 풀어놓고 싶다. 교과서는 내 꿈의 보물 지도이다. 

고등부 금상

## 교과서의 흔적들

글 김유은 (광주상무고등학교 2학년)

우리 집 서재에는 생명을 다했지만 틀림없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25여 년 전,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고등학교 때의 국어와 국사 책입니다. 지금은 많은 종류의 문학과 근 현대사의 교과서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 과목들의 유일한 교과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앞과 뒤의 표지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여백을 이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의 수능인 '학력고사'를 위하여 공부를 하신 흔적들입니다. 그때의 교과서는 시험의 핵심적 자료들이었고, 모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하셨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필기구도 부족하여 네 가지, 다섯 가지 색으로 정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과목 책들도 갖고 계셨습니다. 군대와 직장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보관하셨는데 숙부가 모두 버렸다고 언짢아하십니다. 그래도 국어와 국사는 숙부가 공부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니다.

그 책들은 그저 아버지께서 쓰셨던 옛날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무언의 지침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꾸준히 노력하여 성공하라는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두 권의 교과서가 더 깊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교육과정 바뀌었지만 몇 차례 똑같이 만들려고 시도해 볼 때마다 아버지의 성실한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느꼈습니다. 공부와 삶과 진리가 교과서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마음을 나는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각 과목별 교과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학교가 지정해 준 하나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시험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흉내만 내었습니다. 중3 때부터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 목차로 정한 다음 내용과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내용은 다른 책에서 오려내어 교과서에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획일적 공부 방법 같지만 그 내용들의 조화에 미소를 머금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 내용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내 마음 빛깔이 가득찬 교과서로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중3 때 평균 99.99의 점수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3년

동안 어느 학원도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공부를, 내 교과서를 손으로,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따라 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것은 하루살이 공부 아니었습니다. 초석 있는 공부를 하게 해 준 근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내 책장에 꽂혀 있는 알록달록 교과서들을 보고서 신기해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도 흥내를 내려고 이것저것 해 보는 것이 귀엽습니다. 아버지의 교과서에 맑게 서려 있었던 이슬방울들이 내 책을 흘려서, 동생 교과서에도 맺히려고 합니다. 아직은 조잡하고 때로는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종종 흥내 아닌 흥내를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동생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교과서라는 명칭은 같지만 구성과 내용이 다르듯, 나와 동생은 더 구별된 교과서를 사용할 지도 모릅니다. 아마 동생은 디지털 교과서의 제1세대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붙잡는 자료도 풍부해질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네트워크가 급격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는 자신만의 공부와 서로 다른 의견을 쓸 공간이 넉넉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상호 교환한다면 교과서를 근거로 한 알토란같은 토론과 지식 발전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내용이지만 진부하고 딱딱하고 획일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그 표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교과서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유형의 물체를 넘어선 우리의 희망입니다. 학문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공부하는 우리는 교과서의 완전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우리의 꿈입니다. 소망스러운 꿈은 교과어의 조그맣고 소중한 곳에 쓰여져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과서 흔적들이 아버지의 참 모습을 투영시킨 것처럼 학생들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넘기다 보면 어린 시절들이 살아 나오는 것처럼 교과서는 조그만 추억들을 되살려 줍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지식과 지혜의 상아탑을 쌓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교과서는 공부의 공부를 하는 근간입니다. 우리가 익힐수록, 의지할수록 마음과 함께 노력할수록 교과서에는 아름다운 여흔들이 간직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책이 아닌, 생각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나를 이끌 것이고, 더 깊은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일반부 금상

## 파랑새의 날개짓을 꿈꾸다

글 한창석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교사)

헤아릴 수 없는 빗갈의 다양한 참고서들이 대형 서점의 서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세상이다. 맛깔나는 서체, 깔끔한 편집, 화려한 그림과 사진들이 눈길과 손길을 잡아끈다. 서점의 규모를 불문하고 서가에서 참고서들은 단연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변주곡이 다양해도 언제나 교과서는 원조요 적자(嫡子) 인지라 그 공신력과 기득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과 개념을 깨닫고 표현하게 하는 진리의 나침반이다. 데생과 구상화를 거치지 않은 추상화를 예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과서조차 없이 독학으로 일가를 이룬 이가 있다면 이는 과장이거나 풍문일 거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교과서는 새로운 희망이요 다짐이었다. 처음 학교를 들어서는 초등학생들이 만나는 지혜의 삼원색이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였다. 바르고 슬기롭게 즐겁게 사는 법. 세 권의 교과서에는 온 세상, 모든 꿈이 담겨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과서는 세상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었다. 10여권을 넘어서는 교과서들은 커다란 배낭이나 쇼핑백을 들고 오지 않은 신입생에게는 두 팔 가득 안아도 감당하기 힘든 부피와 무게다. 하지만, 투덜거리는 학생은 많지 않다.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는 교과서의 서로 다른 빗갈보다 더욱 다양한 꿈이 피어난다. 마치 잭크의 콩나무처럼 교과서를 마음 밭에 심는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아니 우등생은 아니라도 성적을 올려보겠다는 꿈을 꾸어보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

내게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도 전부터 만난 교과서들이 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던 어머니의 교과서가 그것이다. 한글도 떼기 전에 그러니까 내게는 삽화나 활자나 모두 그림에 불과했던 시절에 어머니의 교과서가 가진 밀도는 알 수 없는 경이감과 신비감을 주었다. 교과서 본문 사이사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빈틈없이 가지런히 박혀 있었는데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색깔도 가지가지였고 가끔 형광펜도 등장하여 주연과 조연을 가르고 있었다. 모나고 날선 곳 없이 잘 길들여진 곰삭은 교과서를 가지고 어머니는 수천 명의 제자들을 길러 내셨고, 중년의 남성 또는 여성들이 아직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제는 정년을 몇 년 앞둔 노스승을 찾아온다. 옛날 이야기 대신 어머니의 교과서 속 『요람기』



며 『소나기』, 『이해의 선물』 같은 소설들은 마치 내 유년기의 원형질처럼 자리 잡고 있다. “물새알은/ 물새알이래서/날개죽지 하얀/물새가 된다/산새알은/산새알이래서/머리꼭지에 빨간 댕기를 드린/산새가 된다.”

박목월 시인의 시였던 것을 기억되는데 어머니가 곧잘 읽어 주셨던 이 시처럼 일평생 선생님이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품은 아들은 운명처럼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살고 있다. 다만, 나의 교과서는 어머니의 교과서에 비하면 지질과 판형이 좋아졌을 뿐 속살이 꽤 들어차지 못한 부끄러운 교과서이다.

교과서하면 아직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연이 하나 더 있다. 소위 뽕뽕이 추천 배정의 덕분으로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모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등교 첫날, 배정받은 1학년 10반에 들어섰을 때. 워낙 새벽같이 등교한 터라 교실에는 나 혼자 뿐이었다. 한참 후 하나둘씩 들어온 아이들은 떠드는 놈 하나 없이 모두 의젓하게 교과서를 뒤적이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과서 가운데 내 교과서처럼 접히 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새 교과서는 없었다.


대부분 밑줄도 그어져 있고 문제를 푼 자국도 있는 연륜(?)이 담긴 교과서들뿐이었다. 심지어 당시 고교생의 필수품이었던 ○○ 영어니 ○○ 수학이 이미 너털너털한 친구들도 있었다. ‘선행 학습을 많이들 한다더니 휴 , 이거 내 실력으로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 혼자 깨끗한 교과서를 뒤적이며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타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과 첫 만남. 출석을 부르려는 선생님의 손에 들린 출석부에는 2학년 10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랬다. 내가 들어간 교실은 작년 1학년 10반! 행정실 아저씨가 반 명패를 바꾸어 놓으시기도 전에 등교한 탓에 나는 2학년 선배들과 함께 그 아침을 보낸 것이었다. 꼭 한 해 뒤 나의 교과서도 선배들의 것과 별반 다름없이 이력이 붙었으니 나를 주눅들게 했던 교과서 행간의 연륜들도 결국은 자연스러운 세월의 무게였던 셈이다.

유수한 명문대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힘겨운 시대. 그래도 기업체의 취업 의뢰라도 들어 움직인 대학교 또는 유망한 전공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공부한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면 목숨보다 소중했던 교과서들이 학년 말이면 그야말로 매정하게 버려진다. 겨울날이면 어김없이 학교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학생들이 버린 교과서로 넘쳐난다.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묵은 때 밀듯 버렸으랴!’ 이해를 하려다가도 나름 성실하게 공부하던 제자들조차 제 이름이 적힌 교과서를 버린 것을 보면 게다가 그 교과서가 먼지와 정체불명의 얼룩으로 더럽혀져 추레하게 폐지 틈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기민하고 영악한 정리 정돈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온다. 최소한 삼백예순날은 손때 묻히고 때로 잠들어 침도 묻혀 왔을 교과서인데 ‘학창 시절의 기념품으로라도 서가 한구석에 꽂아 두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날로그 세대의 바람을 가져 보는 것이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 남다른 경쟁력을 찾는다. 고액 과외, 비싸고 이름난 참고서, 심지어 외국 유명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하고 발간한 원서도 날개 돋 듯 팔려나간다고 한다. 종

은 책들이 합당한 사랑을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나는 이제껏 교과서 이상의 책을 꼽아 본 일이 없다. 아이들이 논술로 고생을 하면 어떤 논술 참고서보다 시민윤리, 세계지리, 정보 사회와 컴퓨터, 경제, 사회 문화, 한국 근 현대사와 같은 교과서의 일독을 권한다.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해법이 다 들어 있다. 영어를 포기하려는 제자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사주고 통째로 암기해 오기를 강권한다. 기초도 없는 녀석들이 자존심은 살아서 펄쩍 뛰지만 반년만 독심 있게 끌고 가면 효과는 만점이다.

지구라는 푸른 별! 대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읽어 내는 난수표는 수학과 과학 교과서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의 감성을 적서 주는 음악과 그림, 온 국민은 한마음으로 묶는 스포츠의 룰도 모두 교과서에 있다. 요즘은 비주얼이나 편집, 검증되고 풍부한 내용 등 시중의 어떤 참고서와 겨뤄도 밀리지 않는 것이 교과서이다. 검정 교과서가 확대된 뒤 출판사들도 자사의 명예를 걸고 양질의 교과서 출판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소중한 교과서를 경시하는 세태는 결국 우리 교육의 책임이다. 일부 학교의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는 사물함 깊숙이 잠재우고 문제집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국정 및 검정교과서의 권위와 유익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학생들도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할 리 없음은 자명하다. 교과서를 홀대한 채 진리와 지혜를 아니 보다 솔직하게는 점수를 찾아 다른 세상을 헤매는 이들을 보며 나는 항상 벨기에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를 떠올리곤 한다. 행복을 찾아 희망을 찾아 온 세상을 찾아 헤매던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결국 자기 집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다. 학교 붕괴라는 근거 없고 흥흥한 소문을 잠재우는 길은, 공교육이 희망을 노래하는 길은 아무리 궁리해도 결국은 교과서에 있다. 더 이상 넣고 뺄 것이 없는 최고의 교과서를 만들고, 이 교과서를 아이들의 도전과 창의의 도약대와 구름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날개로 달아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어든 밤까지 학원가를 헤매지 않아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된 지금도 새롭게 받아드는 교과서만의 향기와 책장을 호르륵 넘길 때의 신선한 떨림은 나의 심장과 머리를 깨우는 최고의 각성제요 강장제이다. 교과서를 날개로 삼아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날갯짓을 가르치고 있다. 내 자신도 긴 인생을 두고는 날갯짓을 수련하고 있는 학생일테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파랑새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뜨거운 태양과 빛나는 바다 사이에서 균형 있는 날갯짓을 선보여 주고 싶다. 

## 교과서는 ‘교육’이며 ‘인간’이다

물에 조금만 닿아도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던 교과서가, 이제는 편찬기술이 발달하고 종이 질과 삽화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과서가 되었다. 교과서는 교육발전에赫赫(赫赫)하게 버팀목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우리나라’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교과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교육적 진리와 인간상을 표상한다. 교과서는 어린 시절 유일한 ‘문학책’이자 ‘지식의 보고(寶庫)’였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 지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용달샘’이자 파스한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영원한 ‘반려자(伴侶者)’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의미로만 존재할 수는 없게 되었다. 공부하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이 변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대해 수필을 쓰는 것은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교과서에 부여하는 고차원의 가치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서를 더 깊고 넓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2009년도에는 응모 분야별 모두 작품의 수준이 고르고 높아져 어느 해보다도 심사하기가 어려웠다. 심사위원 사이에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데 의견 차가 많을 정도로 교과서예로의 접근 방식과 전개의 기교가 색다른 작품이 꽤 눈에 띄었다.

반면에 교과서로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켰다거나 잃어버린 교과서를 다시 찾은 감격 등 학교생활에서 겪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도 적잖이 있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보다 지식을 쌓고 성적을 올리는 데 합리적이라고 교과서를 찬양하는 글은, 공교육을 강조하는 의식은 좋았으나 교과서를 너무 단 순화시켜 해석하는 한계가 엿보이고, 물에 젖은 책을 말리거나 달력으로 책을 싸 주시는 부모님 이야기 등도 감동은 자아내기는 하나千篇一律(千篇一律)적인 소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과서가 주는 ‘규범적’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경험을 통하여 교과서에 새롭게 부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교과서에 얽힌 경험이 일상적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참신한 기법으로 가치와 의미를 구조화한 작품을 찾아 본 것이다. 교과서의 가치를 실체화하는 단어로 선명히 규정한다든지, 인격체인 대화의 상대로 삼아 실제의 체험이 감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교과서를 바라보는 눈’에 변화를 준 작품에 관심을 두었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일반적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 울림도 있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초등부 작품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교과서를 ‘나의 습관을 고쳐 주는 스승’으로 항상 베게 옆에 둔다거나, ‘나의 친구요 나침

판’, ‘내 마음의 씨앗’, ‘나의 성장 앨범’ 등에 비유하여, 교과서의 가치를 내면적으로 탐구하고, 그 소중함을 단순한 직관(直觀)적 관찰에서 탈피하여 추상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교과서는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 보물창고로, 문장부호로는 ‘물음표’라고 단정하고, 여기에 ‘마침표’, ‘쉼표’ 등의 용어를 끌어들이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립된 시각을 이용 교과서의 가치를 새롭게 관찰한 〈교과서는 물음표〉는 그 발상과 기법이 빼어났다. 〈교과서 속에 숨겨진 보물들〉에서는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교과서와 참고서의 다른 점을 논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나중에 미술 선생이 되면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抱負)를 밝히는 끝맺음도 이채롭다.

중등부에서도 ‘내 꿈의 멘토’, ‘자신의 색깔’, ‘가난한 사랑 노래’, ‘청자 빛 하늘’ 등 제목에서 부각시켰듯이 교과서의 소중한 가치를 언어적 표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많았다. 교과서 내용과 기행을 연관시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을 피력하거나,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성장을 묘파(描破)한다든지,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를 상상이지만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내 꿈의 멘토 교과서〉에서는 외교관이, 〈자신의 색깔〉에서는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장래의 꿈을 글의 모두(冒頭)에서 선언한다는 출발은 같으면서도 교과서와 관련하여 이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판이(判異)하다. 친구들은 꿈을 펼치기 위해 학원으로 내달리지만 ‘꿈의 길잡이’인 교과서를 펼치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보여준 ‘교과서 속의 멘토’ 광개토대왕, 윤동주, 에디슨의 인간상과 업적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교과서는 나의 보물 지도’라고 단정한다. 반면에 처음엔 ‘만능 엔터테이너’를 생각했지만 국어 교과서에서 ‘나다움’이란 글을 읽고 자신이 외모에만 너무 신경을 썼던 옛날의 어리석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다움을 간직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단언하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 ‘자신의 색깔을 지닌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결심의 과정이 대조적이다.

고등부에서는 〈할머니의 서재〉, 〈낙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의 꿈〉, 〈외할머니의 교과서 찢기와 내 실력〉, 〈이모할머니의 늦깎이 입학식〉, 〈마지막 선물〉(외할아버지), 〈흑백과 칼라, 대를 잇는 교과서 사랑〉(어머니) 등 어른들과 교과서에 얽힌 일화를 들어, 이분들이 교과서로 공부하고 싶었던 꿈을 이룬 사연을 감동적으로 전개한다든지, 교과서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터득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 다른 분야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교과서의 흔적들〉에서는 아버지가 사용한 ‘국어’, ‘국사’ 교과서는 생명을 다했지만 살아있는 ‘무언

의 지침서'라 하고, 그리하여 공부와 삶과 진리가 교과서에 들어 있고, 교과서는 학교요, 희망과 꿈이기 때문에 익히고 의지할수록 우리를 이끌고 아름다운 여흔(餘痕)이 남는다고 하였다. 누나의 '국사' 교과서에 얹힌 일화를 소개한 <똥떡을 먹으며 발해를 본다>에서는 교과서의 효용을 애정과 교차시키며 그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 교과서를 '똥떡'이라고 재단한 자신과는 달리 "발해야 잘 있느냐?"라고 안부를 묻는 누나의 흔적을 직감하며 귓불이 뜨거워진 자신을 발견한다. 누나의 교과서에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 역동성이 탁월하다.

일반부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고양시키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과서는 '파랑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인 <파랑새의 날개 짓을 꿈꾸다>와, 널리 알려진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이야기를 모티프로 교과서에 대한 안목을 넓혀 준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깨운 교과서> 등이 교과서의 중요성을 보다 '넓어진 눈'으로 접근한 작품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과서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 가족이야기를 다룬 <남매의 책>, 지은이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필기한 교과서를 보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굳어지게 된 미혼모가 희망을 품고 초·중·고 졸업장을 받은 사연을 담은 <누군가의 교과서>에서는 '지식의 보고'라는 가치에 더해서 인간과 인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보여 주어 더욱 감동적이었다.

교과서는 단순히 교과서만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관계되는 공동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도 역동적(力動的)으로 작용하며 살아있는 유기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교과서만큼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도 없다. 때문에 교과서의 중요성이 이에서 태동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하는 수준급의 수필이 많이 나와, 교과서가 창조하고 보증하는 인간적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무한이 열렸으면 한다. 교과서는 '교육'이며 '인간'이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이다. 연

2009년 10월 31일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심사위원장 박삼서

## 연구재단 소식

### ※ 2009학년도 2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를 각 발행사로부터 기증 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금성출판사(20권), 두산동아(96권), 미래엔컬처그룹(42권), 지학사(10권)입니다. 기증에 협조해 주신 발행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시상

○...우리 연구재단은 '제7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를 실시, 2009년 8월 27일 입상자를 발표하고 2009년 9월 16일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금상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상장과 부상을, 은상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상장과 부상을, 동상 및 장려상에 재단 이사장 상장과 부상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의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장 박삼서 교장 선생님, 심사위원 박남화, 송인발, 윤광원 선생님과 행사를 후원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검정교과서,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컬처그룹, 지학사, 천재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원자력 시설 현장 연수 실시

○...우리 연구재단은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원자력 시설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서 편찬 자료 수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간: 2009. 11. 19~11. 20(1박 2일간)
- 장소: 영광 원자력 본부
- 참여 인원: 40명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I 교 과 서 별 구 입 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75-120
	중학교	○ 국어 1,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일부	지학사	(02)330-5302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 어1, 확률과 통계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 어2, 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농업계, 상업계 일부	교학사	(02)707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I 서 울 지 역 직 매 장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 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두산동아(주)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 02-3670-5106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23-4682~3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0 2 . 2 6 5 1 . 1 9 5 0

#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철\_전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_3412, 462, 4312, 642, 9408번

##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9,076	6,587	35,663
일반 자료	2,839	-	2,839
계	31,915	6,587	38,50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